

그레마스의

기호학에 대하여
1

프레드릭 제임슨
Fredric Jameson
주근옥 역

그레마스의 기호학에 대하여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¹⁾

주근옥 역

그레마스(A. J. Greimas)는 영어로 번역된 그리고 미국인에게 제공된 프랑스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의 최후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이론가이며, 가장 어려운 그리고 과학성으로 충만이 되어있으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텍스트가 존재함으로써, 모든 관점에서 수학, 상징기호의 논리, 또는 음악이론의 금지된 그러면서도 단언된 영역에서 좌절된 것 같은 것을 교차시키고 있는 경계를 그리고 있는 항상 “휴머니스트”로 보이는 형식화(균등화, 도식, 가변성의 그리고 상수의 비연외지연적인 상징기호)의 그래픽(graphic)으로 아마 돌출할지도 모른다. 그레마스의 관심과 실제적인 연구의 전체적인 범위를 풍부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떠맡고 있는 이 책은 이론의 우수한 가치가 이미 그 안에 그리고 그 텅 상에 있었던 것으로 타고났다. 그레마스의 활동의 장(場)이 우리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만들고 있는 그 가치는, 어떤 자연과학 분야와 먼 것이 아닌, 어느 신뢰할 수 있는 문학의 또는 문화비평의 특권이 부여된 영역으로부터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또는 표상 그 자체의 지극히 새로운 그래서 문제가 많은 불확실성으로 우리에게 유도된 현대의(contemporary) 사회과학과 철학의 이러한 영역으로부터도 별개의 것이 아닌, 화술적인, 의미 있는, 담화적인, 관념적인 언외지의(내포, connotation)의 전체적인 영역(terrain)을 점령한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국외자가 이러한 개념성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따금 배처럼 물으로 끌어올려 놓고 어떻게 그 안의 덕과 시뮬레이션(simulation)²⁾으로 과장하여 행동하는가, 도입의 다양한 종류를 보

1) Fredric Jameson(1934~): 미국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출생. 헤이버포드(Haverford) 대학 졸업. 문학비평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그는 현대의 문화적인 경향의 분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조직적인 자본주의의 압박 하의 문화의 파행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을 기술했다. 잘 알려진 그의 저서는 「포스트모더니즘: 근대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Postmodernism: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정치적 무의식(The Political Unconscious)」, 「마르크시즘과 형식(Marxism and Form)」을 포함한다. (역주)

2) simulation: 라틴어 Simulacrum(환영, 위조품, 복수형: -cra)이 기원. "likeness, similarity"를 의미하는데, 다른 사물의, 이를테면 조상(彫像) 또는 회화의, 특히 신의 표상을 위해 사용되어, 16세기 후반 영어에서 최초로 기록되었다. 19세기 후반에, 그것은 실제 또는 기원

여출 필요가 있다. 내 자신이 그의 정설에 관해 당치도 않을 정도로 냉정하면서도, 뿐만 아니라 중단 없는 진전과 이렇게 새로운 “분야”의 그 약동성에 말려들게 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동조자임을 고백하며, 어쨌든 신선한 문제를 생산하고 있는 그의 능력과 그때의 절박하고 자극적인 문제는 시발점의 보다 심층의 진실이라고 해서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의 정확(rightness)의 최소 또는 하찮은 것이 아닌 기호로 존재한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기호학(물론 거기에는 많은 또 다른 종류가 존재한다) 진전의 역설적인 순간에 도착했으며, 그 안에서, 20년 후에 비역사적인 것으로 그리고 분석적·과학적 양식을 어떤 부르주아 계급에서 보편화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된, 때때로 일종의 탐색의 대통령취임 텍스트는, 이제 그 자신의 역사상에 단지 반영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침윤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포화상태의 관점에서 그리고 수확체감의 순간에 수정된, 게다가 그것이 일부였던 것의 확장(enlargement)과 전체적인 개념 영역의 적응의(適從, subsequent)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입증하는, 진전의 그리고 논리적인 개념인 약동성의 바로 그 내재논리의 보다 심층의 역사성을 발견한다. 그레마스 기호학이 담고 있는 영향력은, 열정적인 그리고 독창적인 어떤 방식으로, 개념이 데이터를 낳고, 그들의 바로 그 영적인 실재(실체, essence)로서의 역사적인 것으로—아니, 저런, 달력의 가공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복잡한 연표로 존재하지만, 기호학적인 문제의 영역 그 자체의 전개된 것으로서의 내재성의 달력으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철학자의 사고(어떤 젊은이, 즉 헤겔 또는 마르크스의, 또는 전향 전후의 하이데거의 사상)의 이전 “피리어드(period: 악보의 “articulation→phrase→period”의 상위의 그룹핑을 상상하라. -역주)와 매우 다른 어떤 것으로 존재한다. 내재의 데이터도 아니고 내재의 연대기적인 유표(chronological mark)³⁾도 아닌 이것은 그저 어떤 막연

의 특성이 없는 이미지로서의 패러다임의 아강(亞綱)처럼 두 번째 결합으로 부풀어 커졌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예술의 시뮬레이크럼으로서의 포토리얼리즘(사진처럼 사실적인 회화·조각의 스타일)을 제공하는데, 회화는 실재의 복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사진을 복사하는 것으로 창조된다. 다른 예술은 “트롱프뢰유(trompe-l'oeil: 캔버스에 얇게 갠 모래에 정밀하게 묘사하는 기법),” 팝 아트,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그리고 프렌치 뉴 웨이브(French New Wave)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형성한다. (역주)

3) 유표(有標: marked)·무표(無標, unmarked)의 개념은 1930년대 프라하학파 트루베츠크이(Nikolai Sergeevich Trubetskoi, 1890~1938), 야콥슨(Roman Jakobson, 1896~1982) 등이 사용한 것으로 최근에는 유표화이론(有標化理論: markedness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대립하는 두 언어요소는 한쪽은 중성적이고 다른 한쪽은 적극적이다. 전자를 표시되지 않은 것, 즉 무표라 하고 후자를 표시된 것, 즉 유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영어는 boys-boy, birds-bird 등의 복수·단수의 대립을 보이는데, -s로 복수를 표시한 것을 유표라 하고 단수를 무표라 한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적용하면 dog와 bitch의 대립의 경우, 후자는 특히 암개를 나타내므로

히 잠정적인 것의 텀으로, 다시, 초기에 가언의 위치(place)를 획득하고 있는 보다 “엄밀한” 형식화로 생각될 뿐이다. 그레마스의 저서에서, 모든 형식화(초기와 후기)는 그들 스스로 “타당한(valid)” 어떤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상의 그들의 명료성이 각각의 “순간”의, 전체로서의 불확실성의 그 순간의, 형상(shape)의, 예리한 자각 없이 불완전하게 존재하며, 그리고 전문적인(기술적인·기교적인: technical) 텀이 빛나는 삶과 함께 맥동(脈動)하는 것 안에서 은하계를 폭파하고 있는 이렇게 특이한 삶의 사이클을 지시한다.

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레마스의 “특성(genius, 그의 이지의 특권이 부여된 형식)”이 항상 문제영역 그 자체의 이러한 편향적인 진전의 바로 그 의외의 의미 안에, 그리고 그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사물을 어떻게 수정하는가를 보여주는 특히 “실행되는 미래의 소행” 안의, 지금 실행되는 미래의 소행-불확실성 그 자체의 이러한 의외의 영속적인 현시점에서의 언외지시를 지시하는, 이것을 또는 그 응고를 또는 편협한 분석을 정위하는 것 안의 고압적인 “교훈(lesson)” 안에, 놓인 것으로 보았다고 언급하는 것으로서의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것이다. 대단한 이론도 아니고 대단한 철학도 분명히 아닌 이것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크리스티앙 메스가 영화이론에서 유사한 정향을 점령할 수 있었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떤 의외의 생산적인 순간에 유사한 어떤 것을 실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⁴⁾ 그것은 예언의 문제도 아니고, 숙명론적인 그리고 극한의 매우 명석한 의미(“결국 우리는 다시 본성의, 또는 ‘자각’으로 호칭되어 사용된 것의 기초 또는 상부구조”의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도 아니다. 또한 그것은, 내 견해로는, 탐색의 복합영역의 이 “대가”의 감독 하에, 게다가 탐색의 복합 템포와 감독 밑의 변화가 많은 실험의 사소한 점에 관한 그의 끈기 하에, 작동하여, 권위와 권위주의를 간파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테제의 일반원칙을 분배하고 있는 그래서 창의력이 풍부한 발명의 물질로 정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제자의 원기 같이 고집이 센 그리고

유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표의 형태가 훨씬 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며, 유표화한 형태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역주)

4) Christian Metz(1931~1993): 프랑스의 영화평론가. 소쉬르의 기호학이론을 영화에 적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영화비평의 논문은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심리학과 라캉(Jacques Lacan)의 거울이론을 영화에 적용한 것이다. 그것은 영화이론이 실재성의 자웅이화(雌雄異花, imperfect)의, 즉 미완성의 반성이 될 능력이 있는 예술형식으로, 그리고 무의식의 몽상상태로 정사(精査, delve)하는 방법으로, 대중화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화언어: 영화 기호학(Film Language: A Semiotics of the Cinema)」, 「허수의 시니피앙: 정신분석과 영화(The Imaginary Signifier: Psychoanalysis and the Cinema)」, 「언어와 영화(Language and Cinema)」가 있다. (역주)

독단적인 채널링(channeling)⁵⁾이 몽상가의 마음과 밀접한(그리고 그의 투기를 최소한으로 위협하는) 그래서 셋길로 빠진 것과 같다.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껏해야, 헤겔이 “사상(事象) 그 자체(die sache selbst)”로 그리고 그것의 객관적인 약동성과 경향(tendencies)으로 호칭했던 것일 뿐이다. 그레마스의 감독자의 지위(superintendence)는 이러한 것들 앞의 자신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그들이 성숙하는, 그리고 아종(亞種)적인 것으로 분열하는, 한결같지 않은, “반자동적인(semiautonomous)” 관자놀이-시간적인 것(temporality)이 되는 순간에, 주의 깊은 끈기로 가르쳐 길들이고 변경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호학적인 설명의 이 화술적인 독해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안에서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심자를 위하여 그것은 최초의 것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다른 방도를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우리가 그레마스에게서 과학과 과학적인 교묘함의 전체 문제를 괄호로 묶고, 우리가 그 이전의 “구조주의”를 또는 “후기 구조주의”를 어떤 부호로, 개인 언어로, 당대의 공공영역의 사유공간을 통해서 동조(同調, resonating)하고 있는 수많은 타자들 가운데 사색적이고 개인적인 언어로, 대항함으로써, 그렇게 추종하는 텍스트의 동체(胴體)로 생각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따라서 그레마스적인 기호학의 “개념”을 차라리 분류법상의 아종적인 명명법(nomenclature)으로, 새로운 것으로, 특이한 것으로, 독단적인 것으로, 폭력적인 것으로, 종종 전체공간을 추하게 개명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명목으로, 이미 친숙해진 대상의 퇴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설(installation)과 투시도법, 다시 말해서 행위주, 화술적인 계약·응축, 화술프로그램, 동류체, 양태화, 역행대용(cataphora), 그리고 결국 시각적인 즉 눈에 보이는 아티클레이션보다, 새로운 상형문자(hieroglyph, 그때 여러 개로 분절된 기관 같은, 즉 직시, 복합 팀, 중립 팀 등의 그 자체 안에 그것의 용어법을 떠맡고 있는)보다 명목이 적은, 명명(nomination)의 기묘한 행위(기호사각형)로, 그렇게 최초로 생각하기로 하자. 나는 기호와 전체투기의 순간으로서의 이 모든 팀 사이의 개념적인 연결로 포착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국외자와 탐입자(분야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기호학자가 되는,” 즉 그레마스의 전체부호를 치환하는, 그리고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신, 그만큼의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가 이 모든 것을 브리콜라주(손이 닿는 아무 것이나 이용하여 만드는 일)하는 것을 자유롭게 느끼게 하지 않으면 안

5) channeling: 물리학 실험에서, 가속시킨 이온 빔을 단결정(單結晶)에 입사(入射)시킬 때, 그 입사 방향이 결정축에 평행일 경우 입사 이온의 투과율이 현저하게 증대되는 현상. (역주)

되며, 즉 보다 명백한 언어 안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또는 매력적인, 그리고 우리의 지적인 동굴로 전리품의 파편들을 빼앗아오는, 다시 말해서 그 조각들을 단순하게 절취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암시의 불성실(현재의 형벌 부호 안에서 그것은 명목 “절충주의”를 낳는다)은, 처음에 보았던 만큼 그렇게 기본적인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며, 때가 되면, 개념적인 여분의 일부를 합성하는 그리고 도구와 기계장치를 분실한 중앙실험실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의 기초적인 개념, 즉 대통령취임식 연설 같은 •용어법적인 복소어(複素語, complex), 명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기호 바로 그대로의 언어, 다시 말해서 “의미소(eme)”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 부채꼴의 “어의소(sememe)”와 “어휘소(lexemes)”로 펼쳐지는, “구조의미론”의 최초의 프로그램을 에워싸고 있는 어떤 중심공간을 기술하는 것 같은, 음절의 어리둥절케 할 만큼의 분아변식, 그 어느 쪽에나 해당하는 것을, 열쇠가 되는 나의 텀 또는 좋아하는 신조어(neologism)의 리스트로부터, 나는 빼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타이틀을 동체(胴體)에 지니고 있는 초기의 저서는 그레마스가 그것의 천착을 시작하고 있는 뒷면의 장소에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꼭 나는 믿고 있으며, 또한 나는 의미소 그 자체를 흥분시키고 있는 현학자적인 문제(비록 그레마스적인 기호학의 절대적인 전제와 그 자신의 절차상의 반영이 지고지선의 자기정화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가 최선으로 유예되고 공중부양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것은 철학적인 복잡성(또 다른 현대 언어이론과의 논쟁적인 그리고 내재결합분야적인 관계)으로 고찰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아종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발점[starting point]의 문제에 관해 말한다면, 보다 더 좋게 실제적인 것은 최초의 텍스트 또는 프로프의 민담형태론과 레비스트로스에 의해 권위 있는 비평으로 추종되고 있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적인 환원”의 변화과정)이 그것에 종속된, 이러한 기호학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기호학의 이탈(departure)의 철학적인 관점과 기호 그 자체의 문제는 최근의 우수한 저서에서 장 프티토-코코르다(Jean Pettitot-Cocorda)에 의해 멋지게 형식화된 어떤 것으로서의 바로 그 자연그대로의 모습 안에서 역설적으로 존재한다. 그레마스의 인식론은 그것의 대상이 의미의 형식인 그 사실의 직접적인 귀결로 존재하며, 바로 그 현존재 안의 의미는 객관화할 수 있는 정의로 존재한다. 의미는 감각이 가능한 현상이 아니다. 의미로서의 그것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진정의 “기본적인 •논리적인 아포리아(aporia)⁶⁾”는 메타언어학적인 그

리고 구성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기초가 만들어진, 그래서 개념적인
 • 기술적인 이론의 이해를 요구한다는데 있다(p. 273).⁷⁾ 이것은 “기호학적인 환원
 (semiotic reduction)”이 언외지언(verbal) 또는 언어학적인 텍스트를 의미의 보다 더
 좋은 •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환원되는 “양태화
 (modalizations)”의 분석에서(단어 “I”는 여기서 강력하게 그리고 조정적인 것으로 사용되기를 원
 한다), 그것은 그때 요망(wanting), 지식(knowing), 또는 실행(doing: vouloir, savoir,
 pouvoir)⁸⁾의 보다 더 근원적인 “모드(modes)”로 환원된다. 그러나 그러한 환원이
 달성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단어와 다른 의미로, 다른
 텍스트로 존재하며, 비록 언뜻 보기에 근원적인 일상의 파롤로, 그리고 궁극적인
 언외지언의 몸짓으로 암시될지라도, 그 팀의 세트는 모든 정향변화(定向變化, drift)
 와 철학과 심리학의, 다시 말해서, 텍스트의 그리고 언어학적이고 개념적인 작용
 이기는커녕 그것에 의해서 “환원된” 본래의 언외지언적인 대상보다 정말 더 좋
 게 복합적인 것의 강력한 영역을 향해 열려 있다. 속명적인 상호텍스트와 교차하
 는 그 메타언어가 역행하는 이 무한공간은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중단
 에 동의하는 설명(L. 비트겐슈타인)”⁹⁾ 안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단어의 구

6) 아포리아(aporia)는 철학적인 것 또는 표면상으로는 질문에서 흔히 그럴 듯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변덕스러운)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제의 결과가 발생하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난국으로 존재한다. 또한 그것은 찢찢매어 수수께끼 또는 막다른 골목에서 혼란된 존재의 상태의 외연을 표시한다. 다시 말해서 아포리아의 상태는 자신이 이미 알고 또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회의를 갖게 되어, 갑자기 모든 것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위기감, 불안감뿐만 아니라 불쾌감, 위축감마저 느낄 수 있다. 이 아포리아의 변덕은 대개 그리스 철학에서 발견되지만, 또한 데리다(Derrida)와 이리가라이(Irigaray)의 글과 같은 탈구조주의 안에서의 역할의 연기로도 발견된다. (역주)

7) Jean Pettitot-Cocorda, *Morphogenèse du sese*(Paris: PUF, 1985), p. 273. 이 개념은 엘름슬레우로부터 그레마스가 차용한 것이다.

8) vouloir; waning(요망), savoir; knowing(지식), pouvoir; being-able(능력). (역주)

9) 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1889~1951); 오스트리아 태생 영국의 철학자. 1925~50년 영국 철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논리학 이론과 언어철학에 관한 독창적이며 중요한 철학적 사유체계를 제시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의 뛰어난 제철업자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에게서 풍부한 예술적 • 지적 재능을 물려받았다. 부모는 음악적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가정에서 음악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14세 때까지 집에서 교육을 받은 뒤 수학과 자연과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오스트리아의 한 학교에서 3년간 공부했다. 그 후 베를린에서 2년 동안 기계공학을 공부했다. 1908년에 영국에 있는 항공학연구소에 들어가 대기권 상층부에서 연의 비행을 실험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곧 비행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 쏠리게 되었다. 맨체스터대학교 공학실험소의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일하면서 프로펠러의 각 날개 끝에 역추진 제트를 달아보려고 생각했다. 또 그는 실험용 엔진을 고안하여 그 제작을 지휘했으며 시험비행에도 성공했다. 프로펠러의 고안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그는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곧이어 수학의 기초를 이해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혔다. 버트런드 러셀의 저서 『수학원리 The Principles of Mathematics(1903)』는 그

상화(reification)에 의해, 다시 말해서, 어떤 새로운 그리고 특권이 부여된 또는 사색적인 부호 또는 체계의 창조에 의해 정상적으로 “해결된다.” 즉 포착된다. 비록 그것이 그 방법으로 확실하게 고찰될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레마스의 기호학이 어떤 종류의 보다 더 좋은 “체계”로 매우 쉽게 오독될 수 있거나, 오해될 수 있을지라도, 정확히 말해서 이것은 그레마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이 풍제(pongé, 누에실로 짠 명주)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것을 “피하는 단어의 중명사(中名辭, 또는 매개념)”가 아니다. 다른 한편, 만약 그것이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주제적인 것(thematic: 또는 여간형성모음적인)”의 이 완음처럼 느슨함(slack)이 일으키는 전통적인 변덕의 텀 안에서 “의미소”와 “어의소”를, 개념상의 복소어 안에서 심층 주제(theme)의 한 음으로 발음하는 둘이상의 연속자음 같은 한 덩어리(cluster)를, 공식적인 “사고”로 작동하여 하위개념의 원소보다도 작은 입자 같이 더 좋게 분열하는 논리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그 자체는, 철학적인 보고서지만, 요리책 또는 단편소설, 또는 과학 텍스트북 등과 꼭 같은 페이지가 될지도 모르는, 언외지언적인 종류의 어떤 착란적인 실재물 안에서 화신(化身, embodiment, 또는 표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제적인 것의 변덕은 만족스럽지 못한데(잠정적으로 실제적인 것일지라도), 그 이유는 그것이 언어학적인 용어법으로부터 의식과 개념의 용어법으로 역행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때 비언어학적인 또는 선언어학적인 의식의 신화학이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주체로, 그들의 지시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주제(themes)”로, 따라서 그 텍스트로, 그리고 선택적이고 주제적인 문화텍스트의 구체적인 사상(事象)으로,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세계(world)”로 불가피하게 정위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포크너(William Faulkner)¹⁰⁾의 “주제(themes)”의 검토(discussion)에 의해, 즉 안락하게

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1911년 비트겐슈타인은 맨체스터에서 공학연구를 포기하고 케임브리지로 가서 러셀과 함께 연구했다. 그는 수리논리학 분야의 지식을 매우 빠르게 터득해갔다. 러셀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내가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을 금방 알아버렸다”고 했으며, 비트겐슈타인을 알게 된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적 모험 가운데 하나”였을 뿐 아니라 “그는 아주 비상한 정열과 통찰력과 지적 순수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술회했다. 비트겐슈타인은 1913년 내내 케임브리지에 머물면서 논리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러셀과 긴 시간 토론을 하며 지냈다. 그 뒤 노르웨이의 스텔덴으로 가서 논리학에 관한 연구에 전념한 채 은거생활을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오스트리아 군대에 입대해 처음에는 도하(度河) 부대에 있다가 나중에 포병부대에서 근무했다. 1916년에 러시아 전선에 배치된 곡사포 연대에서 포대관측병으로 복무하면서 용맹을 떨쳐 여러 가지 훈장을 타기도 했다. 그 뒤 장교훈련을 받고 포병장교가 되어 1918년 이탈리아 전선의 한 야산포대로 전속되기까지 동부전선에서 근무했다. (역주)

10) William Cuthbert Faulkner(1897~1962): 미국의 소설가. 1897년 9월 2일 미시시피주(州)의 뉴올버니에서 출생하였다. 1949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며, 두 차례 풀리처상을 받았다.

다시 담긴 그리고 그들의 “의미”가 딴 그릇에 옮겨진(다시 말해서 불확실한 말!), 매우 사적인 망상(obsession)처럼 그들을 그의 머릿속 가까이 모두 되돌려놓은, 단지 심리학적인 투기로 변형된 발언권-말에 의해 산출된 간악함의 구제(relief)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그것은 이러한 기호학을 여러 가지 종류의 주제적인 비평의, 즉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과 함께 그것이 오히려 그러한 심리학적인 방법을 위해 강력한 치환과 양자택일로 고찰되는 것 안에서의 지각(運刻) 단계에 마침내 도착하는 것으로 준비된 비평의, 보다 익숙한 변덕의 텀으로 포착되기 시작할 수 있다. 그 의미소는 사실 그들로부터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세계 그 자체를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조직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팔호로 묶기를, 회피를, 또는 유예를 시도함으로써 시작되는 철학적인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혼란으로 되돌아가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인용했던 장 프티토-코코르다의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레마스 자신이 그 자신의 단호한 벗어남(swerve)¹¹⁾을 성취하여 즉각 실행하고 기술하는 것 안에서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fiduciary contract)

남부(南部)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릴 적에 근처인 옥스퍼드로 옮겨 그의 생애의 태반을 이곳에서 보냈다. 어려서부터 글을 좋아하여 고교 시절 시집(詩集)을 탐독하고 스스로 시작(詩作)을 시도하였으나 고교를 중퇴하였다. 1920년 대학도 중퇴하고 곧 고향으로 돌아와, 1924년 친구의 도움으로 처녀시집 「대리석의 목신상(枚神像, The Marble Faun)」을 출판하였다. 그 후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1926년 전쟁으로 폐인이 된 한 공군장교를 주인공으로 한 첫 작품 「병사의 보수(Soldier's Pay)」를 발표하고, 1927년 풍자소설 「모기(Mosquitoes)」, 1929년 남부귀족 사토리스 일가(一家)의 이야기를 쓴 「사토리스(Sartoris)」를 발표하였다. 이어 1929년 또 다른 남부 귀족 출신인 콤프슨 일가의 몰락하는 모습을 그린 문제작 「음향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를 발표하여 일부 평론가의 주목을 끌었다. 다시 1930년 가난한 백인 농부 아내의 죽음을 다룬 「임종의 자리에 누워서(As I Lay Dying)」, 1931년 한 여대생이 성불구자에게 능욕당하는 사건을 둘러싸고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작품 「성역(聖域, Sanctuary, 1931)」을 발표하여 일반 독자에게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8월의 햇빛」(Light in August, 1932), 「압살롬, 압살롬(Absalom, Absalom!, 1936)」 「야성의 종려(棕櫚, The Wild Palms, 1939)」 「마을」 「무덤의 침입자(Intruder in the Dust, 1948)」, 「우화(寓話, A Fable, 1954 풀리처상 수상)」, 「읍내(邑內, The Town, 1957)」, 「저택(邸宅, The Mansion, 1959)」, 그리고 유머를 특색으로 하는 「자동차 도둑(1962, 풀리처상 수상)」 등 장편소설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중편과 단편도 상당히 써서 「곰(The Bear)」을 비롯한 몇 권의 단편집도 펴냈다. 이상의 여러 작품을 통해서 포크너는 미국 남부사회의 변천해온 모습을 연대기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요크나파토파군(Yoknapatawpha郡)”이라는 가공적인 지역을 설정하고 그 곳을 무대로 해서 19세기 초부터 20세기의 1940년대에 걸친 시대적 변천과 남부사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 한결같이 배덕적(背德的)이며 부도덕한 남부 상류사회의 사회상(社會相)을 고발하였다. 이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신뢰와 휴머니즘의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규명하려는 그의 의지의 발현(發現)이라 할 수 있다. (역주)

11) 라틴어 “clinamen(벗어남, 기울어짐, 빛나감)”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

과 같은 십자형의 변천(crucial passage)을 지시하는 바로 그것에 의해 다양한 언의 지시로 이동한다. “의미의 생산은 기왕에 주어진 의미의 변형 단지 그것만으로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의미의 생산은 변형으로 호칭될지도 모르는 어떤 내용의 평범한 형식(Mise en forme)과 함께 의미작용의 기본재산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의미 형성의 느낌으로서의 의미는 의미변형의 가능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Du sens, p. 15).” 이제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의미의 안정적인 또는 철학적인 문제와 우리가 어떤 언외지언의 복소어의 의미를 고립시키려고 시도할 때마다 생산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제 그 위치 안의 또 다른 텍스트를 발견하는 그것만으로 유래되는 것 같은 메타언어의 무한한 역행(regress)과 병존하는 그 관계를 목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목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텍스트가 신기루 또는 시각적 환영 안에서 의미의 명백한 현존재의 안정적인 그 순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미는 느낌으로의 거기에 결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의 변형의 변화과정 안에서 “언제나-이미-주어진(always-already-given, 여러 가지 메타언어를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제 그것은 기호학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오로지 가능한 대상(사물화[réification]된 것으로 입증된 것 자체로의 의미 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현혹시키는 잔상[afterimage])으로만 존재하는 변형의 변화과정(의미 생산의)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step)는 기호학의 매우 불확실한 것의 확고한 재 형식화와 기왕에 만들어진 기호를 함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성된 새로운 문제, 그리고 전제로서의 새로운 영역과 화술과 화술적인 이론의 영역보다 다를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탄생하는 개념성과 병존한다. 그러나 첫 단계에서, “화술”은 단지 변화현상(변형, 생산, 수정)을 기록할 뿐이며, 사고와 분석의 안정적인 모드에 의해 기록된 대상의 습관을 버리는 그것은 여기서 사건의, 관자놀이-시간적인(temporal) 독창성의 스캔들로 동정된다. 또는 비록 르네 톰(René Thom)¹²⁾의 “파국

12) 1. René Thom(1923~2002); 프랑스의 수학자. 그는 기묘한 이론으로 호칭될지도 모르는 것의 견지로 나아가고 있는 위상학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이러한 후자의 중요성에 관한 견지로, 즉 파국이론(catastrophe theory)의 창시자로서 그의 저서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수학에 있어서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Fields Medal, 1958)을 수상했다. 2. catastrophe theory: 한 체계를 조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이 연속하여 변할 때 그 체계가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분류하는 일련의 수학적 방법. 파국이론은 변수와 결과인 양상이 곡선이나 곡면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기하학의 한 분야로 간주한다. 이 이론을 형식적으로 발달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위상수학자 르네 톰이다. 파국이론의 간단한 예로서 점점 많은 무게가 실릴 때 아치형 다리의 변화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무게가 임계값(critical value)에 이를 때까지 다리는 비교적 일정하게 변하다가 이 값에 이르면 다리는 갑자기 변한다

(catastrophe)”이 될지라도.

그때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화술성이 교황의 지상권(至上權)과 같은 어떤 무엇을 주장하는 현대(contemporary) 이론의 탁월한 유파가 될 것이다. 화술성은 여기서 연구의 새로운 대상, 즉 막연히 어떻게 특권이 부여된, 또는 고유명목처럼 확고하게 특권이 부여된, 연구의 대상보다 더 유연한 어떤 무엇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철학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명제의 문제이며, 그 연좌는 사고의 모드로서의 화술 그 교황의 지상권(至上權)과 같은 것의 문제가, 인식적인 또는 특별하게 분화된 추상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사고의 심원한 화술로서의 주장의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신화의 구조와 야성적인 사고(pensée sauvage, 또는 전개념적인, 지각적인 “과학”)의 성질을 레비스트로스의 개척적인 저서에서 그들의 영감을 발견하는 그러한 명제는 지배력과 화술적인 기호학의 독창성의 성격을 만드는데 적합한 형식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철학적인 단언을 기호학과 동화시켰으며, 그것은 그들이 오로지 초기 그레마스만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로 편하게 고찰해도 좋을 것이며, 최근에 이러한 기호학은 “양태화”의 언외지시로서의 화술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매우 명백하게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것으로). 즉, 분명히 보다 인식적인 또는 문법적인, 하여간 우리가 기호학의 “화술학적인” 단계로

(즉 붕괴), 카타스트로프(파국, 대변동)라는 용어가 이런 극적인 사건만을 제시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불연속 변화의 카타스트로프도 많이 있다. 움직이는 물에 의한 반사와 움직이는 물을 통과하는 빛의 굴절은 파국이론의 방법에 의해 잘 연구되며 다른 많은 광학현상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사회과학자들은 파국이론의 개념을 흥분한 군중 돌발과 같은 여러 상황에 적용해왔다. 집을 지을 때를 예로 들어보자. 집의 형태는 건축가가 머릿속에서 구상한 아이디어들이 다이어그램화된 도면의 형태로 우선 존재하고 이후에 특정한 재료들로 구성된 구조체로 노동력을 통해 형상화된다. 하지만 집의 형태는 그 어느 부분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가 없다. 건축가의 두뇌 속에도, 도면 속에도, 혹은 각 부재들 속에도 집의 형태를 완전히 설명할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동일한 재료들과 노동력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점과 우리가 주로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들 질량과 에너지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 형태는 이처럼 한편으로는 구성 물질들 이상의 무엇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들 물질과 에너지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이처럼 정적인 형태들조차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해석이 쉽지 않다면 시간 속에서의 변형을 포함하는 생명체들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르네 통이 제시한 “파국이론(catastrophe theory)”은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 대한 보편적인 타입의 종류들을 수학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변형 과정의 최종적인 목표가 “흡인(끌어당김, attractor)”에 의해서 재현된 최종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면서 이를 발생에 적용하였다. 그는 모든 대상이나 생명체들이 그러한 'attractor'들에 의한 재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발생의 과정은 초기의 'attractor'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사라져가면서 최종적인 'attractor'에 의해서 재현된 형태에 의해서 교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생명체들에 대한 위상학적인 해석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한 공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이 새로운 발생의 형태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가는 아직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주)

호칭할지도 모르는 것을 통해 얻게 된 사건의, 연기자의, 교체의, 그리고 전승의, 전체적이며 불확실한 것의 양태화보다 더 추상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화술적인 것과 인식적인 것 사이의 이러한 작용 안의 보다 더 복합적인 파생언어를 배경음악처럼 보다 더 좋게 강조한다. 요컨대, 이러한 결말이 연구된 텍스트의 성질의 가치에 의해서든지 또는 어떤 딸림음처럼 지배적인(dominant) 방법론의 추진력이나 경향의 가치에 의해서든지, 하여간 딸림음처럼 지배적인 것으로 존재할 때, 각각은 교황의 지상권 같은 것 또는 타자의 선형성을 음험한 수단으로 훼손한다. 따라서 화술의 선형성으로 막연히 호칭되었던 것은, 화술적인 분석의 예배의식 안에서, 레비스트로스의 저서 안에서, 프로프와 그레마스의 다산적인 것과 프로프의 대통령 취임연설과 같이 고쳐 쓰기, 그리고 나중에 내포적인 그래서 위대한 모파상의 소설¹³⁾ 안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는 작은 연구의 성병(聖餅, 성체 성사·미사의 빵) 안에서, 처음에 역설적으로 인식적인 특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철저히 화술적인 표층(신화, 동화, 단편소설)의 환원(reduction)으로 각색되었다. 그것에 의해서 화술은 사고의 형식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증명되지만, 과중한 대가로, 즉 그것의 고쳐 쓰기, 환원, 또는 변형은 추상적인 사고로 그리고 그것의 상징(token) 또는 반대로 되돌아간다. 과연, 기호학적인 분석의 이러한 형식 안에서, 인식적인 특성과 상호작용(interplay)과 함축은 훨씬 더 세밀하게 열거되고, 우리가 전통적인 문학비평 안에서, 즉 인식적인 것의 지위가 기껏해야 작가의 견해를, 세대의 편견(독자층을 포함하고 있는)을, 막대한 그리고 막연한 세계관(Weltanschauungen)을, “관념의 역사”의 막연한 개념을, 또는 이것의 중재와 기발한 “개념(매우 빈번하게 과학의 역사로부터 가져온, 예를 들어 “엔트로피”)¹⁴⁾을 포함시키도록 허락된 곳 안에서 지금까지 소유했던 어떤 것보다 더 복합

13) 영어로의 접근. Paul Perron에 의해 이루어진 John Benjamin의 서문과 번역.

14) entropy: 1. 물체의 열역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양(물리학). 어떤 물리계 내에서 일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 일은 질서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양은 그 계의 무질서나 무작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일정한 온도 T를 가진 계에 dQ라는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더해줄 때, 엔트로피의 변화 dS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dS=(dU+pdV)/T \geq dQ/T$$

여기서 dU는 에너지의 변화, p는 압력, dV는 부피의 변화를 나타낸다. 가역적(可逆的)인 과정에서는 $dS=dQ/T$ 이며, S는 계의 현재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현재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상관없이) 가변적인 상태이다. 모든 자연과정은 비가역적(非可逆的)이며, 반드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 즉, $dS > dQ/T$. 엔트로피는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진 성질이다. 다시 말해서, 그 크기는 어떤 계 내에서 0에서 전체 에너지까지 변할 수 있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1850년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루돌프 클라우지우스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었는데 때때로 열역학 제2법칙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 법칙에 따르면 고온과 저온의 기체가 저질로 혼합될 때나 기체가 진공내로 확산하여

적이다. 표층을 정교하게 해독한 그래서 은유와 같이 매우 화려한 문체의 수사학적인 비평(Kenneth Burke)¹⁵⁾은 텍스트로 이동하지만, 심층구조 개념의 의외의(extraordinary) 직관을 통합하는데 실패한 그래서 비-화술적인 양식이다. 가늠자로서의 버크(Kenneth Burke)의 “연극주의(dramatism)”는 그레마스의 “행위주적인(actantial)” 그리고 “정향적인(positional)” 분석과 매우 흡사하다. 동시예(meanwhile), 비록 프라이(Northrop Frye)의 “원형적인(archetypal)” 비평이 역사적으로 화술 그 자체인 구심성(centrality)의 재주장으로서의 신기원을 이루는(epoch-making)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식적인 내용 그 자체가 이러한 접근을 위한 중심문제로 드러났다고 언급할 수 없다. 결국 노련한 마르크시스트의 비평은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정향진보적인/보수적인, 계급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관념(ideas)”의 의외의 것이면서 좁은 문학개념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서, 마르크스 그 자신이 의외의 화술 그 자체를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in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¹⁶⁾ 마르크스를 초월하여 그것은 화술 특유의 약동성과 구조의 천진난

갈 때 또는 연료가 연소할 때와 같은 비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엔트로피의 통계적인 해석방법에서는 열역학적인 평형상태에 있는 매우 거대한 계에서 엔트로피 S는 S에 해당하는 거시적 상태를 실현하는 미시적 방법의 최대 개수 W의 자연로그에 비례한다. 즉 $S = k \ln W$ 이다. 여기서 k는 볼츠만 상수이다. 모든 자발적인 반응은 비가역적이다. 따라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다. 즉 역학적인 일로 변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주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2. 정보 전달의 효율을 나타내는 양(정보이론). (역주)

15) Kenneth (Duva) Burke(1897~1993); 미국의 문학평론가. 지식의 본질에 관한 심리 분석과 “상징 행위”로서의 문학관으로 유명하다. 20세기 후반의 미국 비평계를 이끌었다. 1916~1917년 오하이오주립대학교, 1917~1918년 컬럼비아대학교를 다녔으나 학위를 받지 못했다. 시 「시전집, 1915~1967 Collected Poems, 1915~1967, 1968」, 소설 「더 나은 삶을 향해(Towards a Better Life: A Series of Epistles or Declarations, 1932)」, 단편집 「흰 소: 단편집(The Complete White Oxen: Collected Shorter Fiction, 1966)」 등을 썼고, 토마스 만, 아르투르 슈니츨러, 오토 슈팽글러, 휴고 폰 호프만슈탈, 에밀 루트비히 같은 독일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했다. 1927~1929년 「다이얼(Dial)」지, 1934~1936년 「네이션(The Nation)」지의 음악평론가로 일했으며, 1928년 「다이얼(Dial)」지에서 주는 문학상을 받았다. 음악평론에서 문학평론으로 바꾸어 1938, 1949~1950년 시카고대학교에서 이 과목을 강의했다. 1943~1961년 베닝턴대학에서 가르쳤으며, 미국 전역과 유럽의 많은 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강연했다. 문학비평가로서 그의 주된 목표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의 저서로는 「반대진술(Counter-Statement)」(1931)·「문학 형식의 철학(The Philosophy of Literary Form, 1941)」·「영원과 변화(Permanence and Change: An Anatomy of Purpose, 1935)」·「역사에 대한 자세(Attitudes Toward History, 2권, 1937)」·「동기의 문법(A Grammar of Motives, 1945)」·「종교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ligion: Studies in Logology, 1961)」·「상징행위로서의 언어(Language as Symbolic Action, 1966)」 등이 있다. 버크는 견해가 바뀌면 꾸준히 그 이전의 작품들을 수정했다. 책 이외에도 계속 학술 원고를 썼기 때문에 전체 작품량은 19세기 전반기의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 이래 가장 방대하다. 특히 언어에 대한 특유의 관점으로 시인이나 소설가뿐 아니라 많은 비평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역주)

16) 1. 브뤼메르 쿠데타(Coup of 18~19 Brumaire); 프랑스에서 총재정부 체제를 뒤엎어 통

만한 관점을 대상으로 삼았던 이러한 연구(즉 Lucien Goldman의 연구)의 최고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체적이고 노련한 전통의 그것은 간헐적인·철학적인·날카롭게 빛나는 그래서 “결핍된 테크닉(단지 민중의 언어만을 사용하고 있는)”의 그 모든 것을 위해 언급하고자 하며, 그리고 그레마스의 기호학이 마침내 의기양양하게 정체를 드러내고 쓸모 있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렇게 분석적인 테크닉임이 분명한 것으로 존재한다.

지금까지 내가 제안했던 것처럼, 의미소와 어의소의 뒤엎힌 초미활동에 관한 화술의 환원(추상적인 주제, 즉 행동근거의 인식적인 언어로 남아있는 것으로 변주를 올렸던: 화술성의 어떤 보편적인 형이상학의 대성공을 고착시키는 것과 거리가 먼)은 반대로 실행된다고, 그리고 인식적인 것으로 되돌아간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축소될 수 없는 화술

령정부로 대체한 쿠데타(1799. 11. 9~10).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전제정치의 서막을 열었으며, 흔히 프랑스 혁명의 실질적 종말로 간주된다. 총재정부의 말기에 아베 시에에스와 탈레랑은 보나파르트 장군의 도움을 얻어 쿠데타를 계획했다. 당시 보나파르트 장군은 불운했던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개선장군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혁명력 8년 브뤼메르 18일(1799. 11. 9) 파리에서 시에에스가 이끄는 원로원은 원로원과 하원인 500인회를 다음날 생클루 궁전에서 동시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겉으로는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자코뱅당의 음모”로부터 양원(兩院)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파리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보나파르트 부대의 위협 아래 양원 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이었다. 다음날인 브뤼메르 19일 생클루에서 양원이 소집되었을 때 보나파르트는 원로원에서 연설하는 도중 실수를 범했으며 다음에는 500인회의 회의장에서 의원들로부터 빗발치는 야유와 비난을 받았다. 의원들은 소문을 들은 데다 주변에 배치된 군대를 보고 실질적인 음모가 진행중임을 직감했던 것이다. 보나파르트는 회의장에서 빠져나왔으나 시에에스와 뤼시앵 보나파르트, 조아생 뤼라 등이 마침내 근위대 병사들을 투입해 상황을 반전시켜 500인회를 해산하고 원로원으로 하여금 총재정부와 의회 자신의 종말을 선언하게 하는 한편 제1통령 나폴레옹을 수반으로 통령 시에에스와 로제 뒤클로 등이 보좌하는 통령 정부의 출범을 선포하게 했다. 11월 14일 보나파르트는 립상부르 궁전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2. 보나파르트(Louis Bonaparte, 1778~1846); 프랑스의 군인이며 나폴레옹 1세의 셋째 동생. 네덜란드 왕(1806~1810)을 지내면서 자기 백성들의 복지를 지켰으며, 대륙봉쇄제에 협조하기를 꺼려 나폴레옹 황제와 갈등을 일으켰다. 살롱에서 군사학교를 다닌 뒤 1796~1797년의 이탈리아 원정 때 나폴레옹을 수행했고, 1798~1799년 이집트에서는 전속부관으로 활약했다. 1802년 제1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그를 조제핀의 딸 오르탕스 드 보아르네와 결혼시켰다. 그러나 그는 부인을 격렬하게 질시했고 나폴레옹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자 원망이 점점 커지면서 강요받은 이 결혼은 불행했다. 1804년 루이는 장군 계급으로 승진했으며 다음해에 파리 지사가 되었다. 1806년 7월 5일 나폴레옹은 그를 네덜란드 왕으로 선포했다. 처음부터 황제는 신민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루이를 견책했다. 1809년 무렵 나폴레옹은 네덜란드인들이 비밀리에 영국과 무역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네덜란드를 합병할 생각이었다. 영국과 루이와의 협상이 모두 실패하자 1810년 나폴레옹은 프랑스군을 파견해 네덜란드의 수도를 공격했다. 루이는 왕위에서 물러나 외국으로 달아났으며 나폴레옹은 7월 9일 네덜란드를 프랑스에 합병했다. 루이는 스스로 백작이라고 칭하며 한동안 보헤미아·오스트리아·스위스 등지에서 살았다. 말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주로 문필활동에 몰두하며 지냈다. 그의 저서로는 「네덜란드 통치에 관한 역사적 기록과 반성(Documents historiques et réflexions sur le gouvernement de la Hollande)」(3권, 1820)과 편파적인 내용의 「마리(Marie, ou les peines de l'amour)」(2권, 1812)·「귀환 Le Retour」(1846)이 있다. (역주)

적인 담화의 마지막 자투리를 열광적으로 탐닉하여 흡수한다고 흔히 언급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순수한” 또는 “근본적인” 화술의 언뜻 보기에 2개의 최후의 원자단위(“등장인물” 또는 “연기자”로 존재하는 것의, 그리고 시제, 변화, 사건, 행위, 파국으로 존재하는 추상적으로 터무니없는 “질료의 사실”로 존재하는 것의, 완강하게 신인동형동성적인 자투리), 즉 이러한 최후의 화술적인 요소로서의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마치 갱내의 물을 배수하기 위해 만든 구덩이(seige)처럼 설치된다. 그리고 내포적으로 기호학적인 기담(奇談) 그 관계의 절정의 순간은 드디어 이러한 주제와 연외지언을, 화술문법의 이러한 최후의 작은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양한, 인식적인 종목의 극미기호학의 “결과(effect)”로 “환원시킨” 이렇게 특별한 양의연동(兩儀連動, engagement)으로 존재한다(마치 행위주와 교환과 같은 개념의 방식으로). 간단히 말해서, “기호사각형”은 이렇게 고쳐 쓴 절차가 통합된 영역이론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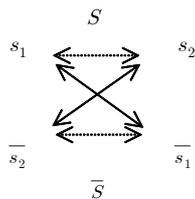
그러나 그것은 2가지 방식의 수단으로 존재한다. 만약 화술이 인식적인 약동성을 늘 간접적으로 비유한다면, 명백히 인식적인 텍스트(철학, 과학과 같은 것)는 이제 보다 더 정당하게 화술적인 분석으로 폭로되고 상처받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파생언어의 또 다른 격변(진자의 흔들림, pendulum swing)으로 존재하며, 이제 그것은 언뜻 보기에 추상적인 것을 다양한 분야의 담화로, 화술프로그램과 모든 종류의 도식의 치환작용으로 해독하고 가면을 벗겨 정체를 폭로할 것이며, 그래서 엄격한 철학의 독립변수(논법, argument)를 벗어나 추상 또는 개념의 진전은 개념적인 대항자에 의해 추진된(menanced), 프로프의 농부설화의 신화와 같은 “마술적인 보조자”에 의해 선동된, 복합 시련과 위험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령의 발현(發現, procession)처럼 읽히고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칸트는(Immanuel Kant)는 최초의 위대한 현대소설가(modern novelist)가 된다. 비록 중심이 벗겨져 정체가 드러난 그래서 변변치 않은 요리책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변용의 연금술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화술의 그 개념은 텍스트 그 자체의 전체적인 우주와 함께 하여튼 인식적인 것의 아종적인 특이성을 음험한 수단으로 훼손시키는 일 없이 그 경계가 완전히 겹쳐 팽창된다. 왜냐하면 그 작용은 비신비화(demystification)의 소행으로 인하여 혼동되지 않기 때문이며(때로는 필연적이다), 반면에 거죽만의 추상의 세트는 신화 또는 불합리한 격아강화(figuration)가 되어 나타난다(부당한 느낌으로). 철학적인 사고의 화술성을 증명하는 것은 그것의 개념적인 또는 지적인 요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단지 그렇기만 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 심층화술구조는 게다가 그 스스로 극미사고의 또는 인식적인 미시물리학(microphysics)의 새로운 형식으로 고쳐 쓰이게 될 수 있다. 화술적인 것과 인식적인 것 사이의 어떤 최후의 형이상학적인 선택이 아닌, 오히려 상수(constant)의 변화과정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끊임없이 타자에 의해 드러나는, 마지막까지 그 위의 딸림음처럼 지배적인 것(dominant)이 되는, 기호학적인 정향의 으뜸음 같이 본질적인 것(essential)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화술성으로부터 양태화이론으로 즉시 격변하는 것(swing)이 그레마스의 저서 안에서 화술적인 것을 넘어 인식적인 것의 최후의 승리처럼 어떤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우리 자신의 환원으로 고찰된다.

그러나 이러한 파생언어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즉, 마지막 메타언어 문제의, 그리고 동정된 다시 말해서 언뜻 보기에 인식적인 언어와 명목 “의미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기호학의 작용적인 “삶의 사실(fact of life)”의 서스펜션과 함께 최후의 철학적인 문제의 브래킷을 주의 깊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경우에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식적인 것도 화술적인 것도 아니며, 단지 장 피티토-코코르다의 언어 안에서의 “정의되지 않은 것”처럼, 최선의 것으로 기술될 뿐이다. 그러나 파생언어적인 언어는 중재의 개념 안에서 이러한 철학적 곤경 없이 또 다른 실제적인 방식을 나에게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내가 기술했던 그 변화과정이 딸림음처럼 지배적인 것이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것 또는 형이상학적인 선행성을 떠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언어의 두 유형 사이의 부단한·상호적인 중재에 의해 가장 적합하게 성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것은 또한 관념론의 전통적인 개념의 확장된 버전(그레마스의 텍스트 안에서 가장 한정된 그리고 기계적인 역할로만 연기하고 있는)이 이러한 기호학적인 분석과 작용의 성질을 아종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는 것과 그들의 광대한 암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위한 근거로 지금 잘 어필될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것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내포적인 의미에서, 이원성(twofold) 또는 이중인격(amphibious)의 실재성, 즉 2개의 명백하고 진기한 그리고 언뜻 보기에 마음 내키는 대로 상반적인 형식을 떠맡고 있는 것의 감수성으로 포착된, 그 관념론을 제안했으며, 그것은 화술적인 것 또는 인식적인 것으로서 죽마고우와 같이 정확하게 존재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관념론”은 의견, 개념, 의사개념, “세계관,” “가치” 등과 같이 보편적으로 수용된 것의 덩어리로 존재한다. 또한 이렇게 막연하게 아종적인 것으로 분류된 개념의 실재물은 화술적인 화신(化身).

embodiment)의 줄지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사실 어떤 방식의 또는 또 다른 은
 익화술의 모든 것으로 존재하는 그들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한 관념론
 의 개념 바로 그 매우 닳아빠진 개념차원보다 매우 광범위한 천착의 범위로 열
 려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제안이 그들이 필연적으로 양자택일을 주장했던 정
 의의 방식에 의해 오히려 대등하게 되었던 그 화술에 의해 인식적인 것으로 반
 제(replace)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바로 그 구조 안에서 무엇으로든지 존재하는
 관념의 형태는 인식적인 그리고 화술적인 형식을 선택적으로 떠맡고 있는 것의
 감수성으로 존재한다.

그레마스의 저서를 위한 이러한 제안의 적절성은 의미작용의 소위 기본구조,
 다시 말해서 그레마스적인 기호학의 최상의 성취를 위해 그 유명한 “기호사각
 형”의 전체적인 사태로 갑자기 나타난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어쨌든 인식으로
 또는 그 역으로 “치환된” 화술을 통해서 “블랙박스(black box)”로 보이게 됨을 발
 견한다. 결국 우리는 방정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앞에서 “명백한(visible)” 것으
 로 존재하기 때문에 신비하게 정위된 것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전
 승의 변화과정을 증언할 수 있다(나는 소건의 귀결에 입하여 나타난 명백한 것의 그리고 공
 간의 이러한 사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고, 이미
 “사각형”의 설명적인 능력 안에서 또 다른 단순실천을 어떻게 명백히 요구하는
 지, 그것의 정전적인 형식은 이러한 의문과 함께 재현된다.



사각형의 이점의 매거(枚擧)는 이원대당의 낡은 구조의 개념상에서 확고한 확대
 로 존재하는 관측과 함께 즉각 시작될 수 있다. "s₁ vs s₂"는 이원대당으로, 또
 는 철학적인 논리의 언어 “반대”로, 즉 강력한 대당(백색 vs 흑색, 남성 vs 여성)으로
 매우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이제 사각형은 2개의 유효한 정향보다 훨씬 좋게 에
 워싸인 것이라는 것을 폭로한다. 예를 들어 그것은 2개의 딸림음처럼 지배적인

탐의 단순부정으로서의 s_1 과 s_2 의 논리학이 “모순”이라고 호칭하는 것의 보충적인 2개의 슬롯(slot)을 포함하지만, 그 중의 어느 한쪽보다 훨씬 좋게 포함한다. 따라서 “비-백색”은 “흑색”보다 더 좋게, “비-남성”은 “여성”보다 더 좋게 포함한다. 동시에 “백색”과 “흑색”의 대당이 초월(예를 들어, 혼혈아)¹⁷⁾될지도 모르는 그 곳의 복합적인 또는 유토피아적인 탐으로 지속되고 있는, S 와 \bar{S} 의 합성 또는 “통합적인” 정향은 더 한층 많은 개념의 확장을 제공한다. 반면에 \bar{S} 는 결집된 결성(缺性, privation)과 부정(negation)의 모든 것 안에서의 중립적인 탐으로 지속된다(예를 들어, “무색”). 결국 그 횡단 축은 제1의 주동적인 또는 이원대당적인 것과 다른 긴장 그 위치(place)의 지도를 만들고, 반면에 사각형의 두 측면을 결합하는 것(“백색”+“비-흑색”)으로 가정하여 제안된 그 통합(synthesis)은 양자택일의 개념적인 결합을 지시한다. 그때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기본적인 이원대당 밖의 어쨌든 10개의 있을 법한 정향을 생성할 수 있다(예를 들어, 그것은 원래 단순 탐 “백색”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은익극단으로 조장하여 분절하는 은익대당에 의해 내면적으로 정의되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이 개념적인 폐포,¹⁸⁾ 또는 보다 더 좋게 정지한, 관념 그 자체의 폐포의 내포적인 지도로, 즉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가언을 받아들기만 한다면, 반면에 가능한 개념과 정향의 풍부한 다양성을 생성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사실 그 자신의 의미에 의해 내부에서 변형될 수 없는 어떤 최초의 아포리아(aporia) 또는 이중묵음으로 짜 맞추어져 자물쇠가 걸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면, 나는 또 다른 전통이 이러한 도식의 중추지배력(interesting)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복합사용과 중추지배력에 관한 국외 자로서의 관측과 함께 이러한 끼워 넣기로 끝마감함으로써 적합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두의 약간의 소견은 그것의 “독특한 사용,” 즉 그것이 실행할 수 있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조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각형은 제언을 실행하지만, “발견된 소인(素因, 또는 제1원리, discovery principle)”의, 단지 특별한 유형의 천연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성 또는

17) mestizo: 혼혈아(특히 스페인 사람과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주)

18) 폐포(閉包, closure): 1. 불완전한 모양, 사고, 상황 등이 완전한 적(積)으로 지각되는 것. 2. 위상수학에서, 어떤 위상공간 X 의 부분집합 S 의 폐포(閉包, closure)는 S 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부분집합이다. 이것은 X 안에 있는, S 의 모든 포함집합(superset)의 교집합으로 구성된다. (역주)

직관으로 반제되는 것으로 보증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사실 그것이 사고 그리고 또 다른(언뜻 보기에 테크닉이 없는) 양식으로 나타난 해석의 지도를 단순하게 그리는 것으로 종종 호칭될 수 있는 한, 그것은 처음부터 최초의 교육학적인 함수를 강조하는데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다 더 혼동적인, 게다가 비경제적·비유기적인, 설명적인 단조로움을 시사하는, 그리고 그 망상의 최소의 지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기호사각형의 이렇게 변변치 않은 교육학적인 능력을 시사하는, 관계의 세트 지도를 그리고 아티클레이션처럼 분절하는 이 시각적인 장치(device)를 매우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발견학습적인 가치로서의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당신이 그 권리(권세)를 얻기 전에 많은 페이지를 암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수의 열쇠역할을 하고 있는 결정이 변화과정 안에서 중재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조정되고 통합된 실재물의 다양성을 목록으로 만든다. 그것은 중국으로 고찰되거나, 미리 처리된 실재물의 성질과 명명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목록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변태적이거나 난외적인, 중요치 않은, 매거된 괴짜의 실재물이라는 것에 매력이 있다(내 관점으로는 더 한층 필연적인). 왜냐하면 그것은 사물의 도식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바로 그 현존재 안에서, 그들의 장소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해결될 수 있는 사각형 문제의 최선의 망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용적인 결정이나 작용적인 순간을 위해, 나는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십자형 같은 3가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첫째,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 같은 그 결정은 사각형 안에서 전체(whole)로 단지 팽창되고 아티클레이션처럼 또는 오렌지처럼 낭중분절 된 이원대당의 텀으로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러한 텀 안에서의 바로 그 목록(目類, order)은 조정(調停)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기본적인 편차, 즉 “백색 vs 흑색”으로든지 또는 “흑색 vs 백색”으로든지 하여간 어떻게든지 지시된 그래서 주조되고 있는 이원성(binary)을 만든다. 사각형은 결코 좌우대칭성이 아니라 “관자놀이-시간적인(temporal)” 또는 “정향적인(positional),”¹⁹⁾ 그리고 수학의 방정식(또는 좌우 두뇌와 같은, 좌우 손과 같은)과 같은 텀의 그 배치(placement, 이러한 최초의 형식화는 분명히 “딸림음처럼 지배적인/종속적인,” “중심/변두리,” “대자/타자”와 같은 어떤 무엇을 지금 곧 포함한다)로 존재하며,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게 하는 방식

19) 'positional'은 종교·건축·언어학의 'orientation'을 의식하며, "orienting reflex" 대신에 "positional reflex"의 어구로 사용한 것 같은데, 심리학의 정향반사(定向反射)로 번역될 수 있는 것으로서, 동물의 이상 자세, 이상 위치로부터 정상자세, 정상위치로 복귀하는 반사를 의미한다. 이것의 중추는 중뇌에 있다. 특히 고양이에게 잘 발달 되어 있다. (역주)

(우리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학습하고 있는 우리자신을 발견하는 그 예기치 못했던 역할을 극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바로 그 깜짝 놀람)으로 활발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장점은 4개의 근본적인 텀($s_1, s_2, \bar{s}_1, \bar{s}_2$)이 유의어 그 자체의, 그리고 유의어의 그 유의어의 줄지음(그들이 서로 정말하게 겹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방식이면서도 비교적 새롭고 광대한 영역 또는 어쨌든 뒤들린 개념성이 그것에 의해 기록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화이트의 “환유” 개념, 즉 2개의 비교적 명확한 “의미소”는 무엇인가로 에워싸인다),²⁰ 즉 환원(과학 또는 기계적인 설명, 결정)의 줄지음 그리고 분리의 줄지음 안으로 운반되고 있는 각각의 것을 다의성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텀은 파생언어적인 미끄러짐으로서의 열매가 많이 맺힌 것 같은 영역을 포함하며, 그 “환원적인(reductive)” 양상은 “은유(metaphor)”의 몽상적인 그리고 표상적인 포만과의 대당으로 지속하는 것을 허락하는지도 모른다. 그때 그것의 또 다른 다시 말해서 순전한 선언(disjunction)과 분리(separation)와 같은 “동정(同定, identity)”²¹은 분리된 것의 재통합과 새로운 전체구성으로서의 “제유”와 함께(또는 반대로) 동등하게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통합되는 것을 허락한다. 텀 안에서 미끄러짐으로 둘러싸일 여기의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손끝의 숙련과 같은 또는 물려받은 지혜와 같은, 실제적인 장점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원자 내에서 생기는 우주의 현기증 나는 투시도법을, 다시 말해서 매우 특이한 기호학자, 즉 피스(Charles Sanders Peirce)²²를 추종하고 있는 에코(Umberto Eco)²³가 기호학성질의 무한한 가분성(可分性, divisibility)으로 응축된 그 자체의 4중 체계를 통하여 입을 크게 벌린 사각형의 으르렁거림의 4개의 근본적인 각각의 텀 안의 “무한한 기호현상(infinite semiosis)”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의 조망으로, 열어놓고 있다.

최후의 조짐(warning)은 4번째의 특별한 성질, 즉 부정의 부정 \bar{s}_2 로 직시되지

20) 「헤이든 화이트의 메타역사(Hayden White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관심이 있는 독자는 재미미된 조목 “역사편찬의 시학”으로 인하여 이러한 고전적인 저서에 관한 내 자신의 위치에서의 어떤 수정에 주목할 것이다. (『The Ideologies of Theory』, 1권에서 인용되었다).

21) identity: 동정(同定): 동일률 또는 정체성, 또는 항등식; $3x=x+2x$ 는 x 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이와 같은 등식. (역주)

22) Charles Sanders Peirce(1839~1914): 미국의 철학자·수학자·물리학자. 확률론 및 철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연구함. 제임스와 달리 프래그머티즘을 창시하였으며, 그 밖의 기호학, 기호논리학 방면에도 큰 업적을 남겼음. 저서에 「논리학 연구」 등이 있음. (역주)

23) Umberto Eco(1932~):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철학·미학에서 동물행동학을 통하여 문화의 총체를 파악하려 함. 국제기호학회장을 지냄. 1891년 소설 “장미의 이름”을 발표. 후에 영화화로 화제가 됨. 주저 「기호학」 등이 있음. (역주)

않으면 안 된다(must be directed). 이것은 신기함의 위치와 역설적인 위급사태의 위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작용이 성공적일 때). 그것은 언제나 가장 임계상태적인(critical)²⁴⁾ 정향과 가장 오랫동안 열려있거나 비어있는 정향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그 동정화가 변화과정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며,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구성의 가장 창조적인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그것은 먼저 3개의 텀이 상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존재는, 그리고 지적작용의 심오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그러나 4번째의 텀은 상대한 흘레의 장소, 심오한 연역의 장소, 천정으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직관의 장소로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양식으로서의 4중 체계가 4번째의 순간에 예기치 않은 것으로 서구 패러다임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마야족의 종교에 의해 예언된 세상종말의 체계처럼, 신화적으로 운반될 수 있는 어떤 무엇으로만 존재한다. 우리의 방식대로 말한다면, 3비극과 1풍자극으로 이루어진 고대그리스의 4부극(tetralogy), 그리고 세계의 종말(end-of-the-world), 즉 발라드(J. G. Ballard)²⁵⁾의 초기소설의 물에 의해(혼돈의 세계), 불에 의해(연소의 세계), 바람 또는 허리케인에 의해(무명[無名]으로부터의 바람), 그리고 …수정으로 변하는 것에 의해(수정의 세계) 자주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방식대로 말한다면, 마야족들에게 있어서의 세계는 불

24) critical: 1. 임계값(critical value, 臨界값): 하나의 변수 x 가 어느 값이 되었을 때 특이한 상태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임계 상태에 있을 때의 x 값. 예를 들어, 디지털 통신에서의 중계기 내에는 펄스의 유무를 판정하는 식별 회로가 들어 있는데, 여기서 펄스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치를 임계값이라 한다. 2. 임계상태(臨界狀態, critical state): 일반적으로 기체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축하면 밀도가 커져서 액화하기 시작하는데, 온도가 어느 한도를 넘으면 아무리 압축해도 액화하지 않는다. 이 한계가 되는 온도를 기체의 임계온도라 하고, 임계온도에서 액화시키는 데 필요한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 한다. 또 임계온도임계압력 상태의 기체를 임계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액체상과 기체상이 공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에서는 기체와 액체의 밀도가 같아져서 물질은 기체상이나 액체상 어느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암모니아처럼 상온에서 쉽게 액화할 수 있는 물질은 임계온도임계압력이 모두 높지만 (135.4°C, 21.5atm), 헬륨(임계온도 -267°C)이나 산소수소는 임계온도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한때 이들 기체를 액화상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서 영구기체라고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체는 그 임계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 있으면 이상기체로서의 성질에 가까워져 보일-샤를의 법칙 $pV=RT$ 를 만족하게 된다. (역주)

25) 발라드(James Graham Ballard, 1930~): 1. 영국의 작가. 그는 과학소설에서의 뉴웨이브(new wave: 예술 사조•정치 운동 등의 새 물결의 지도자들)의 저명한 멤버였다. 그의 잘 알려진 책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충돌(Crash)」, 그리고 자전소설 「태양의 제국(Empire of the sun)」이며, 둘 다 영화화되었다. 형용사적인 "Ballardian"은 그의 장편과 단편, 특히 암흑향(暗黒郷, dystopia)의 모더니티, 황폐한 인공조망에서 기술된 조건의 비유와 암시로 정의되며, 전문적인, 사회적인, 또는 환경진화의 심리학적인 효과는 "Collins English Dictionary"에 수록되었다. 2. 그의 초기소설: The Window From Nowhere(1961), The Drowned World(1962), The Burning World(1964), The Crystal World(1966). (역주)

로 끝날 것이다. 두 번째로 세계는 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세계는 바람(허리케인)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또한 네 번째로 …재규어(원래 하늘의 별인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육식류의 형식으로 선택되며, 인류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위하여 지구로 떨어졌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기호사각형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약동적인 것이다. 그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목록으로만 존재하는 그 안의 정향적인 그 성격의 의미 그것의 중요성(significance)은 개념적인 봉쇄 또는 마비상태를 기록함으로써 쉽게 관자놀이-시간적인 변화과정의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꼭 그렇게 고찰될 수 있다. 사실 후자는 전자, 즉 개념적인 또는 관념적인 폐포의 이탈로, 낡은 것과 기왕에 주어진 것(사물쇠가 채워진 것처럼 닫힌 것)으로부터의 이탈로, 발견된 그 사각형을 회전시킴으로써 그리고 암시적인 정향을 생성시킴으로써, 어쨌든 사건의 또는 돌파구의 또는 새로운 것(Novum)의 신기함을 필사적으로 생성시킴으로써, 그 기도를 유발하는 바로 그 시추에이션으로 아주 흔하게 포착될 수 있다. 그러나 폐포 그 자체의 바로 그 이미지로서의 사각형으로 고찰하는 것은 헤겔적인 것보다 얼마간 다른 방식 그것으로부터의 탈출가능성에 대해 어떤 비판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모순을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프락시스에 의해 오히려 우리는 이제 생명이 없고 부적절한 원래의 모순이 해명 없이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장소가 신선하고 예기치 못했던 모순으로 포획된다(그것은 보다 노후한 아포리아들[aporias]로 또는 관념적인 구속으로의 어떤 진척이 될지도 모르거나 진척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상황을 변경한다.

그러나 사각형의 바로 그 계슈탈트적인 특성(평등하게 안정적이거나 약동적인 것이 되는 그 능력)은 강력한 중재능력으로 고찰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한순간의 화술적인 것을 일련의 “인식적인” 또는 관념적인, 결합적인 정향으로 “환원”할 수 있다. 또는 새로운 정향 안에서 인식적인 텍스트를 필사적인·화술적인 순간으로 고쳐 쓸 수 있는 그것은 이것의 또는 관념적인 통합의 시동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융합하는 것에 의해, 생성되고 포기되며, 그들의 양립하지 않는 그리고 적대자적인, 구조-파편적인 성질로부터 석방된다.

나는 사각형의 가능한 “적용”의 예증을 어딘가에서 화술분석의 문제로 제안했다.²⁶⁾ 2개의 화술측면(“개성적인,” 보다 더 좋은, 개성의 체계, 그리고 인식적인 복소어 또는

26) 1. Fredric Jameson의 「정치적 무의식(The Political Unconscious.)」(Ithaca,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p. 165ff. 그리고 253ff. 또는 「아마겔론 후에」: 「본능적 욕

모순) 안에서의 방식을 암시하는데 기여할지도 모르는 이렇게 이단적인 효과는 통합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된 부호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텍스트가 범주의 4중 세트, 즉 은유, 환유, 제유, 그리고 아이러니의 4개의 수사로 기왕에 둘러싸여 조직된 그 자체인 한, “인식적인” 또는 이론적인 텍스트, 즉 사전에 조제된 것으로 믿어지는 “화이트의 메타역사” 분석의 샘플로 간략하게 묘사할 것이다. 그때 범주의 이러한 최초의 체계는 3가지, 즉 스티븐 페퍼(Stephen Pepper: 형식주의, 기계주의, 유기체설, 콘텍스트이론)²⁷⁾로부터 묘사된 세계관의 유형학, 프라이(Herman Northrop Frye)²⁸⁾의 “플롯구성(emplotment, 로맨틱한, 비극

구의 블루드머니)에서의 성격체계, 과학소설연구 2(1975. 3): 31~42. 2. Armageddon: 세계 종말의 날의 선과 악의 결전장; 요한계시록 XVI: 16; 일반적으로 최후의 대결전, 국제적인 대결전장. 3. blood money: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인을 고발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 청부 살인자에게 주는 살인 사례금. 피살자의 근친에게 주는 위자료. 공군속에서 적기 격추 상금. 미국속 어로서 피땀 흘려 번 돈. (역주)

27) Stephen C. Pepper(1891~1972); 그는 주로 프라그마티즘의 전통에 대해 연구하고 저술했다. 반면에 그의 이념은 현대 사상의 몇 가지 유력한 결과(예를 들어, 지식·마음·논리학·윤리학·가치의 사회적인 원천)를 결합시켰으며, 그의 주요한 연구는 미학에 있었고, 대개는 「가연의 세계(World Hypotheses: a study in evidence, U. of California Press, 1942)」라고 하는 저서로 잘 알려져 있다. 「가연의 세계」에서, 그는 “은유체계의 근원(root metaphor method)”을 진척시켰으며, 기본적으로 적합한 가연의 세계(전망체계 또는 개념체계의 세계), 즉 형식주의, 기계주의, 콘텍스트이론, 유기체설(formism, mechanism, contextualism, and organicism)을 고찰하는 것의 윤곽을 그린다. 그는 그들을 종합하는 효과의 역설적인 그리고 때때로 신비화하는 효과와 마찬가지로 가연의 세계 각각의 강력함과 허약함을 동정(同定)한다. 후기 저서에서, 그는 제5의 가연의 세계, 다시 말해서 은유의 공통의미 안에서의 동정을 포함하는 그의 방법, 또는 레이코프(Lakoff)와 존슨(Johnson)이 경험으로 대중 분류한 것을, 그리고 그때 은유의 특성이 어떻게 범주의 자의식체계와 실재성을 포획하려고 시도하는 사건의 원리를 정면되는 지를 지시하는, 그래서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로 호칭되는, 그의 방법, 즉 “선택주의(selectivism)”로 고찰된 것을 형식화했다. 그 개념적인 명료함은 은유체계의 근원에 의해 생략되고, 가연의 세계의 분석은 마음의 성질, 과학의 역사, 공통의미 사이의 계층적인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리고 공통의미와 형식논리학과 수학과 같은 사고의 형식적인·자기지시적인 모드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체계적인·경험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몇 가지 중요한 관계가 그에 의해 적용되었다. 스티븐 페퍼 철학의 핵심은 가치에서의 지배력에 있었다.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윤리학과 미학에서의 문제로의 진기하고 상상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역주)

28) Herman Northrop Frye(1912~1991); 캐나다의 교육자·문학비평가. 유명한 비평이론서를 저술했다. 프라이는 토론토대학교, 토론토에 있는 에매뉴얼대학, 그리고 옥스퍼드대학교 머턴 칼리지에서 공부했다. 1939년부터 빅토리아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여 1952년에 영문학과 학과장이 되었고 이후 학장(1959~1967)과 명예총장(1978~)으로 재직했다. 미국 여러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도 있었다. 1947년에 「놀라운 대칭: 윌리엄 블레이크 연구(Fearful Symmetry: A Study of William Blake)」를 출판했는데, 이 책은 블레이크의 환상적 상징주의에 대한 개괄적이며 해박한 연구서였다. 「비평의 해부(Anatomy of Criticism), 1957」에서 다양한 문학비평 양식을 분석했고, 문학에서 전형적인 상징들의 반복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중의 저서들에서는 엘리엇(1963), 밀턴의 서사시(1965), 셰익스피어의 희극(1965) 및 비극(1967), 영국 낭만주의(1968)를 연구했다. 1970년에 「엄격한 구조: 비평과 사회에 관한 에세이(The Stubborn Structure: Essays on Criticism and Society)」, 1982년 성서에 나타난 신화와 구

적인, 희극적인, 그리고 풍자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념론의 기계주의적인 범주(아나키스트, 급진적인, 보수적인, 자유주의적인)로 더 증가된다. 실제로 그것은 이러한 말하자면 수직단층의 세트가 사실 통합된 특징의 두 어군으로 융합되는 경향이 있다. 그 수사와 스티븐 페퍼의 “가언의 세계”는 동일특성을 위한 언어의 교체로 함수 작용을 하고, 반면에 그 “플롯구성”과 관념론적인 암시는 유의어적으로 함수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두 어군(소정의 역사구조로 대충 상응하는 것과 별도의 형이상학적인 언외지의 또는 수용)의 각각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이러한 레벨 안의 변동의 방식(환유에 관한 초기의 예는 이러한 “팀”의 성서비유적인 해석으로부터 그 개념적인 또는 가언세계적인 의미로의 변동을 예증한다)에 의해 어느 한 팀에서 다른 팀으로 양도될 가능성으로 언급했던 창조적인 미끄러짐이라는 것을 지금 곧 발견한다. 공개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범주의 두 어군이 언제나 일치하여 함수를 필요로 하든지, 또는 우리가 불일치, 즉 성서비유적인 해석의(tropological) 메커니즘, 그리고 플롯구성적인 것 또는 관념론적인 메시지 간의 모순을 상상하지 못하든지,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화이트(Hayden White)²⁹⁾가 가능성으로부터 어느 명백한 귀결을 끌어내는 것 없이 예견하는 것 같은 어떤 무엇으로 존재한다.³⁰⁾

어쨌든 화이트의 저서는 두 가지 사태의 실행을 탐구한다. 첫째, 역사가 그 자체에 의해 보다 더 낮은 그리고 보다 더 아마추어적인 지위로 배속된 역사편찬의 전통적인 정전(正典, canon) 속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리고 역사편찬의 소위 역사철학자(헤겔, 마르크스, 니체)의 인식적인 요구를 거둬 주장하고, 그것과는 현저히 다르게 이 저서의 “실재적인” 또는 활동하고 있는 역사편찬자들은 네 사람, 즉 미슐레(Jules Michelet), 랑케(Leopold von Ranke), 토크빌(Toqueville), 부르크하르트

조를 연구한 「위대한 법전: 성서와 문학(The Great Code : The Bible and Literature)」을 출간했다. 다른 비평자들은 문학에서의 집합적 신화의 존재, 문학적 상징, 장르, 비평의 체계적 분류를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다. (역주)

29) Hayden White(1928~): 화이트는 미시간(Michigan) 대학에서 중세 및 르네상스사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웨즐리언(Wesleyan) 대학을 거쳐 산타 쿠르즈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는 동안 “의식과 사상의 역사(History of Consciousness and Ideas)”를 담당하였다. 본인은 자신의 전공을 “문화의 역사(History of Culture)”로 소개하기도 한다. (역주)

30) 따라서 예를 들면: “물론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은… 환원을 스테판 페퍼에 의해 제공된 원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는커녕, 그들의 사상은 둘 또는 스테판 페퍼가 윤곽을 그리고 있는 교조주의적인 위치의 종류보다 더 많은 것 사이의 중재를 묘사한다.”(p. 13, n. 7); 또는 “모든 대역사가의 저서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파생언어적인 긴장은 독립변수(논거)의 모드와 채용의 모드, 또는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관념적인 암시의 모드와 함께 결합되는 효과가 발생된다.”(p.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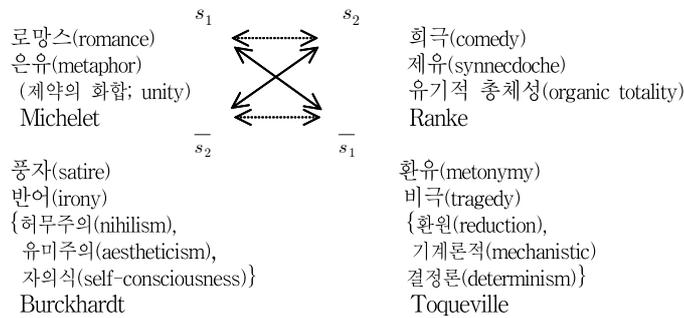
(Jacob Burckhardt)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사실 메타역사적인 성취는 이러한 것보다 상당히 더 날카롭게 비꼬는데, 그 이유는 독립변수(argument)의 돌격적인 진의가 사실 역사편찬자보다 더 역사적인 역사철학자의 주장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이러한 정향을 생성시키는 텍스트가 기호사각형에 의해 어떻게 문제의 아티클레이션 중의 하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해답이 필요하다.

메타역사의 또 다른 함수(특히 19세기 “역사적인 상상력”으로 한정된)는 이미 매겨진 개념적인 유형의 적절성을 단지 증명만 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은유 또는 로맨티즘을 시작하고 있는, 순환함수가 부정 또는 환유·환원의 기계적인 단계(stage)를 통해서 생기는, 제유의 새로운 단위 안에서 보다 더 큰 총체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구성을 재요구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리고 결국 아이러니의 순간에 그 자체의 언어학적인 또는 역사적인 상상력의 새로운 위기로 신호하는 그리고 예기될지도 모르는 성서비유적인 해석 절차의 자의식으로 정박하는, 위대한 비코(Giambattista Vico)³¹⁾의 역류(逆流, ricorso)의 방식에 의해 신선한 확신으로 다시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자의식에 이르는 리듬 속에서, 그 순환(cycle)과 함께 신선한 은유적인 또는 로맨틱한 순간은 더 증가하여 강화된 레벨에 다시 미쳐 빠져지기 시작할 수 있다. 사실 그것은 화이트가 아이러니와 위기의 순간이라고 마지막 결론에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아이러니, 환유의 순간이 명확한 2개의 형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위기는 2개의 명확한 발작-즉, 부르크하르트의 “악행” 아이러니, 고요한 그리고 심미적인(요컨대 크로스의 “철학”은 이러한 정향의 보다 더 정교한 이종으로 존재한다) 아이러니가, 그리고 화이트가 분명히 언급한 바에 의하면(비록 헤겔과 마르크스가 언급한 것일지라도, “윤리의 계통연구”의 저자와 함께 다소간 동등한 배경으로 복원된) 니체(Nietzsche)의 “선행” 또는 강력한 아이러니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으로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뒤엎힌 동작은 닥치는 대로인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개성적인 견해 또는 메타역사적인 것의 관념적인 편애의 “단순한” 결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그 패턴은 매우 관념적인 것이며, 다양하고 가능한 텀과 그 위에 지도가 그려진 메타역사로서의 기호사각형의 작용에 의해 분명해지고 아티클레이션처럼 분절될

31) Giambattista Vico(1668~1744); 이탈리아의 문화사 철학자·법철학자. 오늘날 문화인류학이나 민속학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저인 「새로운 과학(Scienza nuova, 1725)에서 역사와 더욱 체계적인 사회과학들을 수렴하여 이 둘을 상호 침투시켜 단일한 인간과학을 만들려 했다. (역주)

수 있다.

그 다이어그램은 결합적인 풍부함과 내가 그들의 복잡한 의미소적인 내용 또는 각각의 안에서 다양한 레벨과 부호의 공동현존재로 존재하는, 그 팀 안의 미끄러짐이라고 호칭했던 것을 아종적인 바로 그것으로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의 복잡함을 되도록이면 참작하려고 한다.



노트: 1. 미슐레(Jules Michelet, 1798~1874); 프랑스의 역사가. 역사에서의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과거의 전체적 재현을 역사 서술의 목적으로 삼았다. 나폴레옹 삼세에 반대하다가 교단에서 쫓겨났다. 저서에 「프랑스사」, 「프랑스 혁명사」, 「마녀」 따위가 있다.

2. 랑게(Leopold von Ranke, 1795~1886); 독일의 역사가. 엄밀한 사료 비판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기술과 세계사적 관점의 종합적 파악을 통한 역사 연구로 근대 실증적 역사학을 수립하였다. 저서로 「세계사」 9권과 「로마 및 게르만 제 민족의 역사」 등이 있다.

3. 브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1818~1897); 스위스의 문화사가·미술사가. 근대 문화사학, 미술사학의 기초를 쌓았으며 미적(美的) 입장에서 르네상스 문화를 연구하였다. 저서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따위가 있다.

4. 토크빌(Alexis-Charles-Henri Clérel de Tocqueville, 1805~1859);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1835, 1840)」와 「낡은 정권과 혁명(The Old Regime and the Revolution, 1856)」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역사가. 두 저서에서, 그는 개인과 서구 사회집단에서의 사회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평등의 효과에 관해 연구했다. (역주)

기호사각형 위의 이러한 최초의 지도그리기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편차 속에서 4명의 각각의 역사가들이 모든 레벨 사이의 화합(unison)의 광경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며, 사실 그것은 내적 긴장의 바로 이러한 부재 또는 그들에 대한 작가의 평가로 고찰되는 모순으로 존재한다. 토크빌의 경우에, 알라존(alazon)과 같이 상대를 경멸하지 않는 아이러니의 형식 그 자체는, 어떤 오이디푸스

스와 같이 비극적인 정식의 신념을 운반하지만, 주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일의어적인 정향이 또한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타성을 부르크하르트 유형의 아이러니와 니힐리즘으로 분해되며, 그때 그 자체(아직까지는 일의적인·관념적인 정향)는 메타역사학자의 아이러니의 충만한 힘에 종속된다.³²⁾ 따라서 이러한 최후는 다양한 유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 우리의 다이어그램 안에 아직 고착되지 않은, 소위 합성된 텀이 아닌,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열려있는 기호사각형의 장점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그 복합적이고 중립적인 텀 *s*와 *ṡ*, 그리고 또한 사각형의 바깥 측면의 직증적인 축은 가능한 통합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하기 전에, 그것은 최초의 이원대당의 선택 안에 이미 귀속된, 말려든, 전략적인 함수로 고찰할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언급할지도 모르는 것으로서의, 그리고 화이트 그 자신이 그것을 “메타역사”의 29 페이지에서 레벨의 다이어그램 안에 최초로 지도를 그리는 것으로서의 그 설화는 최초의 은유적인 자각으로서의 이것을 환유 또는 결정론의 부정적인 순간 그리고 닥치는 대로 기계적인 우연성으로 지시한다. 그때 그 부정적인 위기(고정관념적인·화술적인 계열체상의)는 제유적인 재구성에 의해 서서히 압도되고, 하여간 내가 기왕에 언급했던 그 관점에서의 일종의 새로운 분해에 의해 그리고 일종의 새로운 위기에 의해, 파헤쳐져 무너지고 가치가 떨어질 뿐인 그 위기(아이러니적인 자의식의 그것, 그리고 제유적인 해법이 정말 그 스스로 픽션적인 그리고 언어학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느낌의 그것)는 전체적인 체계를 은유적인 재구성의 새로운 피리오드로 시동을 걸고 회전시킨다.

32) irony: 이 말은 'eiron'이라는 그리스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그리스 희곡에 항상 등장하던 불박이 인물 중의 하나였다. “에이론(eiron)”은 겉보기에는 약하고 세력도 없지만 꾀가 많아서 역시 희곡의 불박이 등장인물이었던 “알라존(alazon)”이라는 힘센 허풍쟁이(사기꾼)를 살짝 골려주곤 한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특별한 데가 없지만 속으로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인물 'eiron'의 뜻이 아이러니라는 추상명사에 살아남아 있다. 즉 아이러니는 겉으로 나타난 말과 실질적인 의미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결과이다. 현대 이론가들은 대체로 아이러니를 말의 아이러니와 극적인 아이러니로 크게 나눈다. 말의 아이러니는 겉으로 하는 말이 내면적으로 의도된 뜻과는 다르거나 정반대가 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다. 극적 아이러니는 작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이러니를 담고 있도록 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인공이 자기가 체험하는 사건 또는 의도하는 일이 종국적으로는 자기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인 데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극일 수도 있고 희극일 수도 있다.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어린 딸은 어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순진한 'alazon'이다. Sophocles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결백과 선의를 의심치 않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천하의 대죄인을(그가 자기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추적한다. 이 비극의 관중은 그가 멋도 모르고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는 처참한 비극적 'alazon'인 것이다. 그밖에 우스꽝스런 행동으로 희극적 요소를 더하는 광대 유형의 버퐁(buffoon), 노드롭 프라이가 자신의 책 「비평의 해부(Anatomy of Criticism)」에서 이 전형적인 인물을 나타내는 용어를 부활시킨 촛뜨기 혹은 속기 쉬운 인물 아그로이코스(agroikos)로 나누기도 한다.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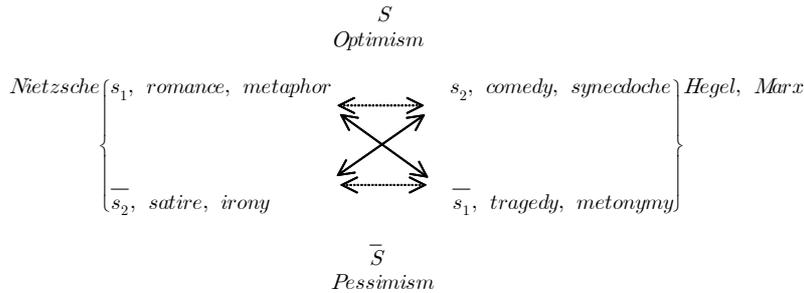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에피소드와 같은 사건의 목류와 상응하는 것도 아니고, 소행(work) 그 자체의 결합적인 논리와 상응하는 것도 아니며, 코미디에 의해 추구되고, 제유에 의해 결합되지만, 환유에 의해 추구되지 않는, 그 로망스와 상응한다. 따라서 우리는 “은유 vs 환유”의 친밀관계가 아니라, 은유와 제유 사이의 어떤 새로운 구성적인 긴장—즉, 화합(unity)의 두 형식, 최초의 은유적인 또는 표상적인 화합(미슐레의 혁명 당시 대단한 무아경의 화합, 특히 1790년 7월의 시민연맹의 축제[fêtes de la fédération]의 화합), 그리고 랑케의 제도(institutions, 교회·국가 등의 형식 안에서 그들의 분리된 부분으로 구축된 제유적인 화합의, 보다 더 “인위적인” 사회적인 화합의 구성 사이의 길항작용(拮抗作用, antagonism)³³)으로 필히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긴장인, 그래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이원대당으로 둘러싸인 기호사각형의 지도를 그렸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각형이 어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이제 독자가 실험에 의해 이러한 주장이 시도되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그 텀의 오로지 이러한 조정(調停)만이 메타역사의 본질적인 것을 생성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무엇을, 즉 가장 심층의 주제, 해법(또는 이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모순을 체득했던 것에 대한 지식의 원천(book)은 “의미 vs 비-의미”의, 또는 “믿음 vs 우연성”의 그것(은유 vs 환유: 19세기 “신앙의 위기”의 지도그리기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것의 2개의 불일치적인 환상 사이의 긴장이지, 만족한 것(무아경의 혁명적인 자발행동과 커다란 사회제도의 보수적인 영속성)이 아니다.

또한 나는 초기에 제기되었던 “제4의 텀”의 문제의 말(word) 대해 부연하지 않

33) 길항작용(拮抗作用, antagonism): 1. 길항작용과 피드백작용의 차이; 어떤 현상에 관하여 상반되는 2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서로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작용을 길항작용이라 하며 이 때 상반되는 2가지 요인을 길항인(拮抗因)이라 한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에 작용하여 변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피드백작용과 차이가 있다. 길항작용의 예: 주로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약물·세균·근육·신경 등에서 볼 수 있다. 근육을 펴는 작용을 하는 신근과 구부리는 작용을 하는 굴근,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교감신경과 억제하는 부교감신경,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 세포의 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이온 사이의 길항작용은 잘 알려진 예이다. 노랑초파리(Drosophila melanogaster)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곤충의 변태를 조절하는 엑디손(ecdysone)이 인슐린과 길항작용을 일으켜 곤충의 성장과 성숙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약물의 길항작용: 약물의 길항작용은 약물을 투여했을 때, 다른 약물의 존재에 의해 그 작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카페인·스트리키니네 등의 흥분제와 바르비탈류의 수면제나 항히스타민류의 진정제, 하제(下劑)와 지사제, 발한제와 지한제, 혈관수축제와 혈관확장제, 파라아미노벤조산과 술파제, 포도당과 인슐린 등을 들 수 있다. 약물의 길항 작용은 약물 투여시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벼섯의 무스카린 중독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아트로핀과의 길항작용을 이용하여 해독한다. 2. 세균의 길항작용; 각종의 세균을 혼합배양하면 어떤 균종(菌種)은 그 배지(培地)가 자기 발육조건에 알맞아 왕성하게 발육되어 다른 균종의 발육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푸른곰팡이는 페니실린을 생산하여 각종 병원세균의 발육을 억제한다. (역주)

으면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비록 단연코 신선하거나 놀라운 것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며, 아이러니는 텍스트가 전도될 때 굉장히 마술적인 텀으로 존재하고, 그 결합적인 메커니즘은 의미의 광대한 의미를 열십자로 교차함으로써 이렇게 터무니없고 놀라운 “정향(position)”을 생산하는 만큼 충분히 빗대어 말하며, 그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그리고 타자들 사이의 한 애티튜드로 간단히 나타나는 것으로 사용한다(이러한 제4의 텀 안에서의 미끄러짐은 타자의 어느 것보다 더 크지 않다).

우리는 사각형의 지도그리기, 즉 그 복합적이고 중립적인 텀이 역사적인 낙천주의(optimism)와 염세관(pessimism)으로 막연히 지시될 수 있으며 그 이완(弛緩)의 언어는 우리가 오랫동안 억류하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곧 결론을 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는 양측의 그 작용의 순간이 거절하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향으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S는 상상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통합으로 존재하며, S는 내용과 최초 대당의 양 텀의 총체적인, 기계적인 부정의 위치를 일소하고 있는 단지 빈 공간으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주의력을 전도시키는 측생(側生, 또는 직시)의 통합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사실 그 위대한 “역사철학자들”은 사각형 자체의 내재논리에 의해 생성되었던 그들의 정향을 발견한다. 화이트에 의하면, 헤겔과 마르크스는 비극과 코미디의 통합을 성취했다. 역사는 코미디이며, 그 개체적인 순간은 비극적이다. 동시에 니체는 비극과 코미디의 동정으로 시작하고, 그것은 서로를 명료하게 능가하고, 무차별적으로 어떤 무엇을 발생시키며, 이제 다시 한 번 극도의 은유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언어의 힘의 아이러니한 의미가 될 것이다(그것이 로망스와 풍자의 단순한 통합보다 더 나은 어떤 무엇이 되는 이 최후의 순간에 능력을 부여하는 로망스와 은유 사이의 기호학적인 미끄러짐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존재하는가를 주목하라). 이것과 함께 그 지식 기원의 결합 순간은 남김없이 구명(究明)되고, 어떤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헤겔, 마르크스, 니체의 선형성은 “일의어적인(univocal)” 역사가들을 초월하며, 그 후 아마 니체의 보다 더 모호한(tentative) 선형성은 니체가 비극과 코미디의 순간을 “포함하는 한,” 그리고 그때 더 나아가 새로운 그리고 독창적인 가능성, 즉 은유와 아이러니를 투기하는 한(철저하게 언어학적인 또는 재귀적인 순간), 초기의 짝을 벗어나는 한, 또 다른 2개의 정향을 초월할 것이다.



노트: romance(로망스), metaphor(은유), comedy(희극), synecdoche(제유), satire(풍자), irony(만어법), tragedy(비극), metonymy(환유), optimism(낙천주의), pessimism(염세관). (역주)

이제 기호 사각형 그 자체의 성질로 되돌아가면,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약동성의 발생은 보편적으로 체계 내에서의 어떤 심원한 공간성의 조짐이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이것은 사실 르네 톱의 파국이론의 공간적인(그는 정향적인 또는 위상적인) 전제 안에서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토대에 지나지 않은 것을 성취하려고 시발하는, 기왕에 언급되었던 다시 말해서 지식의 기원 속에서 장 프티토-코코르다에 의해 인식되었던 어떤 무엇으로 존재한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진취적인 정신의 생존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면의 기호학 안에서 변경을 허용치 않는 공간의 이러한 끈덕짐(persistence)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사회집단 안에서의 그 발생의 역사적인 사실인, 그것이 관자놀이-시간적인 것에 사로잡혀 모더니스트 이전의 생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초월하는 지적으로 주어진 피리어드 그것만의 예 또는 전조(symptom)의 증명사도 아니다. 모든 구조주의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묘히 공간적이며, 그리고 단지 그들이 수사학적으로만 또는 직각의 표상(presentation)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비록 그 사실이 사전에 언급된 것일지라도, 우리는 부합하는 언어학적인 표현보다 그리고 반드시 무의미한 것도 아닌 그들의 진전보다 현대의 보다 더 교육학적으로 확신하는 그리고 설득적인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발견한다).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철학자 르페브르(Henri Lefevre)³⁴는 공간의 진심에서 우려난 새로운 철학을 가장

34) Henri Lefebvre(1901~1991); 르페브르는 지력이 뛰어난 프랑스의 마르크시스트. 사회학자였다. 「공간의 생산(The Production of Space, 1974)」에서, 그는 공간의 다양한 레벨이 매우 추상적인, 가공하지 않은, 자연 공간("절대공간")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생산된 의미의 보다 더

역사적인 기초, 즉 현대 자본주의의 경향을 나타내는 공간화(그리고 우리는 포스트모던의 르페브르의 저서 안에서 예견되지 않은 개념의 사용을 덧붙여 언급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로서의 기초를 조정(措定)했다. 그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어느 의미에서 틀림없이 “진리”로 존재할 할 것이며(하여튼 화용론적으로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진전으로 가득 찬), 동시에 내가 화해(reconciling)를, 즉 현대 자본주의의 총체적인 체계의 그 구조가 새로운 이론체계의 개념화와 아티클레이션을 위한 가능성의 조건과 같은 어떤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 그 화해를 무난히 발견하는 그 시대의 성격의 심원한 역사적인 전조로 위치한다. 아마 이것은 또한 더 한층 다르고 새로운 그리고 기호학 그 자체의 진전을 위한 미답의 영역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공간의 기호학, 즉 그레마스의 저서에서의 기호학의 기왕의 편협한(local, “전역·전국”에 대한 “특정 지역의, 지방적”의 뜻의) 영역은 보편적으로 실행된 존재(being)가 아니라, 기호학 그 자체의 공간과 공간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정향적인 또는 위상적인(topological) 의미의 우리들 사고의 지평(horizon)으로 존재한다. 하여튼 영어권에 소개된 기호학의 예사롭지 않은 사건의 파노라마와 같은 이 새로운 최초의 개관에 참가하게 된 것을 나는 영예롭게 생각한다.

노트: denotation(외연): 1. 텀 A는 확장(extension)이 관련되는 한 개념을 다 써버리고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정의를 에워싸고 있을 때, 외연(外延, denotation)이라고 언급된다(cf. J. S. Mill). 따라서 예를 들면, 언어학적 단위는 그것이 그것의 모든 출현을 포섭할 때 외연적(denotative)이다.

2.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연적(denotative) 성격은 이러한 체계가 경험론의 원리의 요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총망라의 요구)로 채워지는 한, 그들은 복합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기호학적 체계로 추정된다. 외연적(denotative) 기호학적 체계는,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에 의하면(그리고 단지 정의의 예비적 시도로서), 기호학적 체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측면의 무(無)-체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두 측면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표현측면과 내용측면으로 조립될 때, 그러한 기호학적 체계는 외연적(denotative)으로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그러한 정의는 2중 2차원의 기호학적 체계의 정의(즉, 정확히 말해서 유명한 덴마크 언어학자들의 용어법으로 말해서 'semiotic')에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과학적(scientific) 그리고 비-과학적 기호학체계(semiotic system) 간의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기 위하여 “외연기호학체계(denotative semiotic system)”을 단념한다. 그는 이것을, 기호학적 체계에 대한 그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가 착상적인(ideal, 막연한 느낌) 텍스트로 전제했던, 그리고 구조적 동차성으로 성격을 만들었던 그 무(無, nothing)로 인하여 용어법을 바꾸게 되었다고 스스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러한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된 것으로서의 어느 텍스트는 몇 가지 다른 체계에 속한다. 따라서 ① 어떤 테스트는 동차적인 실재물로서의 아프리오리로 관측될 수 없다. 역으로 그것은 진보된 분석으로 선택된 부속물로서의 레벨의 텀으로 구성된다. ② 어떤 자연언어는 외연적(denotative) 기호학체계로 존재하지 않

복합적인 공간성(“사회적인 공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역주)

으며, 그렇게 표출된 담화는 몇 가지 체계(몇몇 내포적[언외지의적, connotative] 기호학체계의 비-과학적 메타기호학체계 등의 기호학체계)에 속한다. © “모든 랑가주(labguage)”는 기호학적(semiotic system)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시니피앙’으로 존재하는 전체로 채택된, 그것을 내포기호학체계(언외지의적 기호학체계, connotative semiotic system; 또는 내포[언외지의, connotation]의 랑가주)로 만드는, 외연기호학체계(denotative semiotic system)의 개념과 결코 동정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랑가주는 증명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N극과 S극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denotative semiotic system=semiology의 차원, 즉 "figure+sememe"이며, connotative semiotic system=semiotics의 차원, 즉 "figure+sememe+thymic category"이다. -역주) -A. J. Greimas,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SEMOTICS and LANGUAGE』(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p. 72~73. (역주)

주근옥 약력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졸업(문학석사)

대전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졸업(문학박사)

“석상·소녀·노을” (우수작: 박두진 선; 학원 8월호, 1961) 데뷔

‘온실’ -전국학생문예콩쿠르 당선(당선 3명 중) 1석; 서라벌예대(현 중앙대), 1962

서울신문 신춘문예(1965) 가작 입선(까중나무와 달과 나); 심사위원
-서정주, 박남수

시와 시론(문예운동) 참여(1972)

시문학 참여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어국문학학회 회원

한국언어학회 회원

한국비평문학회 회원

어문연구학회 회원

개신어문학회 회원

대전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심사위원(2002, 2003)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역임

시집

산노을 등에 지고

감을 우리며

번개와 장미꽃

바퀴 위에서

갈대 속의 비비새

저서

한국시 변동과정의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

석송 김형원 연구

논문

50년대의 사회적 배경과 주요 시인의 시적 특성(개신어문연구 제 30집, 2009, KCI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공간의 이중구조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어문연구 제41집, 2003, KCI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체시의 표층구조와 기원에 관한 一考(한국언어문학 제50집, 2003, KCI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창가의 문화접변적 성격연구(국어국문학 제133집, 2003, KCI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정형시의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비평문학 제17호, 2003, KCI급;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신화적 공간의 수호를 위한 직립보행(「비평문학 제16호, 2002, KCI급;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가시리와 진달래꽃의 비교분석(한국시문학 제12집, 2002)

자물쇠 걸기와 풀기, 그리고 그 미장센의 역동성(조선문학 통권 174호, 2005. 10)

허파와 쓸개 그리고 친구 찾기로서의 역동성(시문학 통권 390호, 2004. 1)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신화창조(현대작가논총 제2호, 2008. 9 30)

後素의 美學(대전시단, 1989)

번역

Algirdas Julien Greimas, Structural Semantics

Algirdas Julien Greimas, On Meaning

Algirdas Julien Greimas · Jacques Fontanille, The Epistemology of Passions

Algirdas Julien Greimas,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linguistics and poetics

Ronald Schleifer,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에 대하여

Fredric Jameson, 그레마스의 기호학에 대하여

Paul Perron · Paolo Pabbri, 그레마스의 정념의 기호학에 대하여

Cynthia Whitney Hallett, Minimalism and Short Story

Warren Motte, SMALL WORLDS—Minimalism in
Contemporary French Literature

Warren Motte, Jacques Jouet's Soul

Roland Barthes, Myth Today

Stephen Crane, The Open Boat

Amy Hempel, In a Tub

Amy Hempel, In the Cemetery Where Al Jolson is Buried

Mary Robison, Kite and Paint

Mary Robison, Yours

Ernest Hemingway, Hills Like White Elephants

Walt Whitman, Democratic Vistas

Walt Whitman, 시집 풀잎 서문

Ezra Pound, Vorticism

Ezra Pound, What I feel about Walt Whitman

臼井吉見(うすいよしみ), 形式主義文學論爭

正岡子規(まさおかしき), 叙事文

井上哲次郎(いのうえてつじろう) · 矢田部良吉(やたべりょうきち) ·
外山正一(とやままさかず), 新體詩抄序

外山正一(とやままさかず), 抜刀隊(新體詩)

萩原朔太郎(はぎわらさくたろう), 詩形の變遷と昭和詩風概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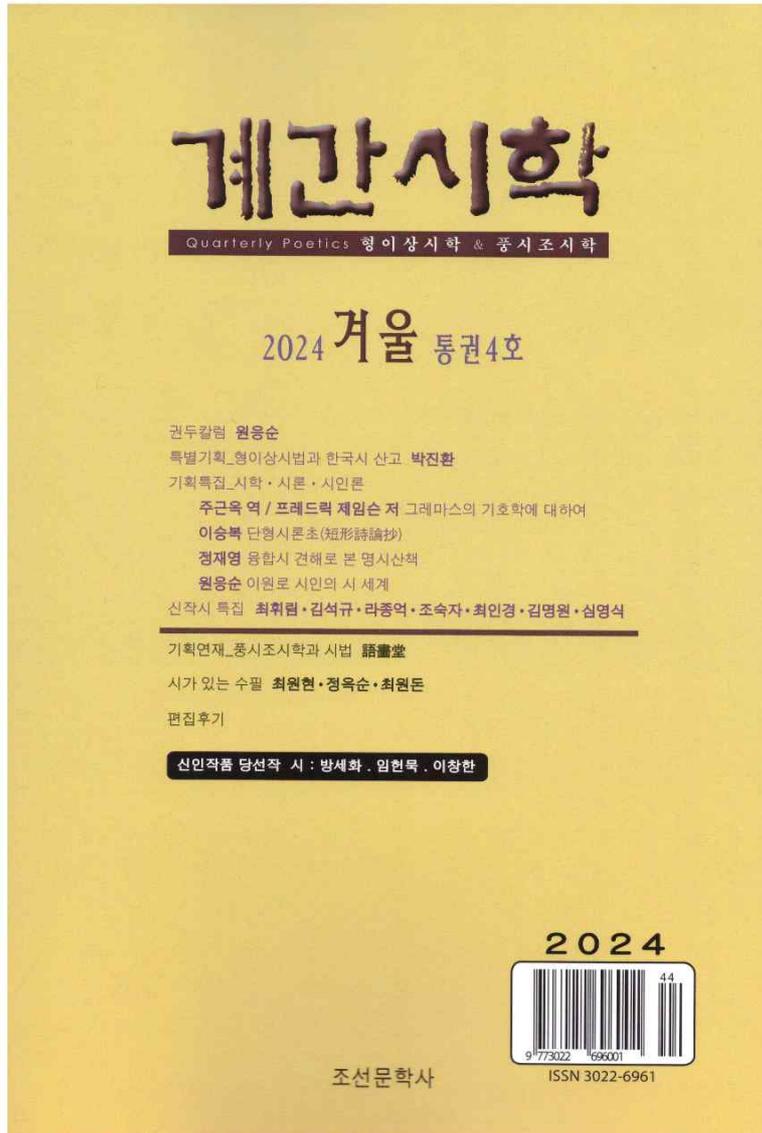
北川冬彦(きたがわふゆひこ), 新散文詩への道

주근옥의 문학세계 - 환원적 다원성의 생동감

공저(김용직 송재영 홍희표 이승원 구수경 송기섭 송기한 장수익

최예열 금동철 김현정 남기택 윤종영 김윤정 김승민 김교식 민명자
박슬기 林陽子)

「계간시학」 (겨울 통권 제4호, 2024. 12. 01)



계간시학

형이상시학 & 풍시조시학



편집위원 강우식 박이도 원응순 이승복
정재영 최원규 최원현 허영자

발행인 겸 편집인 / 박진환
주 간 / 이시언
편집장 / 이도화

발행 : 조선문학사
0373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89(홍제동)
전화 : 02-730-2255
팩스 : 02-723-9373
E-mail : chosunmh2@daum.net

인 쇄 명인문화사
등록번호 서울 라 10002
등록일 1988. 10. 27
발행일 2024년 12월 1일
ISSN 3022 - 6961

정가 10,000원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권두칼럼
원응순 노벨문학상 유감 ▪ 3

▪ 특별기획
박진환 형이상시법과 한국시 산고 ▪ 6

▪ 기획특집 시학·시론·시인론
주근옥 역 / 프레드릭 제임슨 저
그레마스의 기호학에 대하여 ▪ 18
이승복 단형시론초(短形詩論抄) ▪ 69
정재영 융합시 견해로 본 명시산책 ▪ 77
원응순 이원로 시인의 시 세계 ▪ 96

▪ 신작시 특집
최휘림 덧니 외 4편 ▪ 118
김석규 겨울밤 외 4편 ▪ 126
라종억 적설(赤雪) 외 4편 ▪ 132